

2025

#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2025. 12.





2025

#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2025. 12.



#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CONTENTS



### I. 고졸 채용

1.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힘	6
2. 빛을 향해 쌓아올린 시간	10
3.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14
4. 고졸자를 위한 아무지고 행복한 구직활동 2025	18
5. 진심으로 달려온 494일, 그리고 합격	23
6. 25살, 다섯 번째 회사와 대학생	28



### II. 블라인드 채용

1. 11년, 대학 졸업에서 채용까지 걸린 시간	34
2. 포장을 못하는 청년, 직무능력으로 정면 돌파하다	42
3. 스펙보다 진심으로, 언어에서 지식재산으로!	47
4. 학력란을 빼고 역량란을 채우다	53
5. 마흔이지만 신입입니다	57
6. 직무 선택, 직무 전문화를 거쳐 확장까지, 직무능력중심 채용	61



## Ⅲ. 장애인 채용

1. 나의 능력에 날개를 달다	68
2.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된다	73
3. 한국에너지공단 합격수기	77
4. 허리는 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	82
5. 다가오는 불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87
6. 나만의 자랑스러운 경험	91



## Ⅳ. 지역인재 채용

1. 전북 청년, 마음 속 별(STAR)을 품다!	96
2. Why not? 스펙이 아니라 방향이다	99
3. 햄버거보다 먼저 배운 자연, 나를 닮은 풍경	102
4. 지방대학 유아교육과, 공공기관 전산직으로 꿈을 이루다	107
5. 불안한 시기, '지역인재'로 나를 증명하다	113
6.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YES'라고 말하기까지	118



## Ⅴ. 청년인턴 채용

1. HIRA 덕후의 옹골찬 인턴십 활용기	124
2. 현장에서 배운 진심 공공의 길을 열다	128
3. 조금함 대신 단단함으로, 청년인턴으로 만들어 낸 나의 숲	132
4. 역대 최대 경쟁률을 뚫은 최연소 입사자가 되기까지의 6개월	136
5. 오늘의 나는 6년 전의 내가 꾸었던 꿈	140
6. 3,500km를 날아 다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다	145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shapes: a large, light blu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hatched circle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blue C-shaped curv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

## 고졸 채용

- 1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힘
- 2 빛을 향해 쌓아올린 시간
- 3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 4 고졸자를 위한 아무지고 행복한 구직활동 2025
- 5 진심으로 달려온 494일, 그리고 합격
- 6 25살, 다섯 번째 회사와 대학생

##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힘

한국자산관리공사 | 나○○



### 🔍 내 인생 첫 번째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늘 오래 고민하는 편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저는 유난히 생각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갈까’를 고민할 때,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의 목표는 단지 친구들을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정한 답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내 답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던 경영 분야를 배우며,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경력과 학업을 함께 쌓자는 목표를 갖고, 특성화고등학교 경영과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작은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선택이니,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말입니다. 약간의 우려와 수많은 다짐 끝에 내린 이 결정은 스스로 선택해 낸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 🔍 이유 모를 열정이었지만 괜찮아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첫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원하던 경영 분야를 공부하며 기대가 컸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처음 배우는 과목들은 낯설었고,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며 '나는 잘 맞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은 목표부터 세워 하루 하루를 채워 나갔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학과 공부에 집중하고, 방과후와 쉬는 시간에는 자격증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에도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 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실천이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아, 방학 중에도 친구와 함께 매일 학교 자습실에 나가 공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격증 교재와 암기 노트, 스터디 플래너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플래너에는 공부 계획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조언과 친구들의 응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1학년 한 해 동안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무렵에는 총 23개의 자격증에 달했습니다. 경영·회계·컴퓨터 등 처음 접하는 분야도 많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고, 선택을 믿는 힘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첫해의 경험은 이후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처럼 묵묵히 책임지고 끝까지 해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 🔍 계속 잘되면 재미가 없잖아

고등학교 2학년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꾸 삐끗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 있던 과목의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3개월 넘게 준비한 대회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아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방학 동안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 차이로 세 번이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된다면,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작성한 기사가 지면에 실리기도 하고, 교복 물려주기를 통해 교복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한 해 동안만 20개가 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활동들을 돌이켜보니 저는 항상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후배들의 편의를 위해,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막연히 '좋은 곳에 취업하자'던 생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로 바뀌었고, 이는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활동의 결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양한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의 확실한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은 제게 실패와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설렘과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기록의 힘을 느끼며 이를 해소했습니다. 사소한 메모는 자기소개서 속 문장이 되었고, 감정을 담아 쓴 일기는 어느새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나'를 기록해 온 습관은 결국 저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매일 한 권씩 총 20권이 넘는 NCS 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마다 잘한 파트와 부족한 파트를 분석해 포스트잇으로 보완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집은 오답 노트로 만들기 위해 잘라 쓰느라 너털너털해졌지만, 그만큼 머릿속에는 확실히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느슨해질까 봐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 매일 점수를 공유하고 서로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과정이 불안하고 버겁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면접 준비 시에는 회사 관련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선생님과 매일 연습했습니다. 막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예쁜 미소를 짓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등푼길 내내 웃으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자산입니다.



### 여러분의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고졸 채용 입사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지금은 실패하기 딱 좋은 시기인 거 같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친구의 농담 한 번, 선생님의 응원 한 마디, 달콤한 간식 한 입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취업’이라는 선택을 스스로 해낸 여러분은 이미 합격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을 굳게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각자의 개성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이 정한 답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책임지며 스스로의 답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의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고대하던 ‘합격’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가치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 앞에서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선택을 내 정답으로 만드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빛을 향해 쫓아올린 시간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



🔍 13, 6, 5, 2 드디어 1

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군 전기직 125:1의 경쟁률에서 최종 합격하여 입사한 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13번의 서류 접수, 6번의 필기시험 탈락, 5번의 필기 합격, 그리고 2번의 최종 면접 탈락을 겪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매년 기대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될까?’ 하는 마음과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며 마침내 첫 번째 최종 합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수없이 도전하고 수많은 좌절에 힘겨워 할 고졸 채용 준비생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서류 전형 준비

최종 합격으로 가기 위한 관문 중 첫 단계인 서류 전형은 지원자가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합격 수기들을 참고하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자산업기사, TOEIC 905점, 전기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내신 기간에는 학교 수업과 내신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중간중간 토익 단어와 리스닝 빈출을 꾸준히 들으며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활용해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 시절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세부 내용이 흐려지기 때문에 저는 경험과 감정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구조화된 기록 덕분에 당시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 🔍 필기시험 준비: 사고 과정을 체화하기

저는 처음부터 NCS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천한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매일 풀기

둘째, 모듈형 오답 노트 만들기

셋째, 문제 다시 풀 때 해설지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

넷째, 오답 풀이할 때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점,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고 정리하기

다섯째, 시간 재고 문제 풀기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해설을 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막힐 때 바로 해설지를 확인하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끝까지 접근 방법을 고민한 뒤, 해설과 제 풀이를 비교하며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어긋났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지를 간단히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 덕분에 문제를 푸는 사고 구조 자체가 단단해졌고, 시간 압박이 있는 실제 시험에서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전기기능사 이론을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한 후, 전기산업기사 필기로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인강으로 개념을 쌓고, 문제 풀이를 반복하였습니다.

### 🔍 면접은 외운 답이 아닌 나를 보여주기

인성 면접, 토의 면접, 인바스켓 면접, PT 면접 등 여러 유형의 면접을 보고 느낀 점은 면접은 “외운 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PT, 토의 면접은 저만의 틀(구조)을 만들어 두고 상황을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답아가는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

### 🔍 흔들렸던 순간들

공부하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이게 맞는 방향일까?’라며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같은 결과가 나온

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 필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땐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도 밥을 먹고 바로 책상에 앉아 NCS를 문제를 풀어 하루 9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오르지 않는 성적에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2번의 최종 탈락을 겪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낙담했었습니다. 합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공부가 쌓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 🔍 입사 후 느낀 점과 정책 제언

입사 후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현장 업무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소통, 안전 수칙 준수, 서류 처리 등 '소통'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끼리 서로 모르는 부분을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도 언젠가 후배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실무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고졸 채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채용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지금 과정이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버티는 시간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고졸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 차○○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합격하여 지사 지역 가입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졸 전형 특성상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며 자료가 많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부터 19살 12월까지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 🔍 내 꿈은 직장인?

중학생 시절, 전교 4등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상업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꿈이 없는, 꿈 자체가 '직장인'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처럼 직장을 갖고, 월급을 받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특별한 꿈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주어진 학업에는 열중하였습니다만, 3학년까지 명확한 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지나다 특성화고 입학 홍보 시간, 선배들의 합격 사례를 들으며 '직장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사회 과목 경제 파트가 흥미롭게 다가와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교육청 주최 특성화고 설명회 및 고등학교에서 마련한 입학설명회에 참여해 보며 공공기관 취업으로 마음을 굳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도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 주어진 시간은 3년, 학업과 경험 쌓기

평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기에 모두가 전공 과목은 처음이고, ‘고등학교 3년만 지나면 끝’이라는 종착점을 정해 놓고 잠을 아끼며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6월에서야 등교하였지만, 그 6개월 동안 전공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입학 후에는 내신 성적 관리에 힘을 쓰고, 17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교내외 각종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그중 상업경진대회 경제 골든벨 분야에 참여하였던 것은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수백 개의 경제·금융 단어를 암기할 기회였고 고등학교 3년간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탄탄한 기본 지식이 되어 다음 연도 상업경진대회 금융실무와 모의투자경진대회에서 금상을, 한경 경제퀴즈배틀 수상,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취득을 이루는 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이라고는 은행밖에 모르던 제가 ‘하면 된다’는 것을 2년간 결과로 마주하였고, 다양한 금융 분야 대회 수상으로 금융 공기업 지원 시 든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교내 회계 과목을 기반으로 고교생 전산회계 대회 수상,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 등을 갖추었습니다. 세무 과목은 이해가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아가며 교과서를 외우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세무사 유튜브 강의도 찾아보는 노력으로 지필 고사 만점, 전산세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회계, 세무, 금융, 경제 등 네 가지 분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전공 이외에도 창업 대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틈매경기자단, 학생회, 교외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서류부터 면접까지

서류 전형은 내 경험을 질문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간 앞에서 말한 여러 활동을 했어도 기억에 남지 않거나 질문과 연결할 수 없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매 활동이 끝날 때마다 활동명, 기간, 느낀 점 등을 정리해 둔 덕에 후반 기에는 서류 전형을 빠른 시간 내로 마무리하며 필기 전형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공공기관의 필기 전형은 NCS입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필기 통과를 해야 면접을 볼 수 있기에 NCS에도 틈틈이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NCS는 보통 PSAT, 모듈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였지만 PSAT형 출제 기업에서 매번 필기 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암기 위주인 모듈형으로 출제되는 기업이나 논술, 전공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기업에 주로 지원해 약점을 보완하며 모든 기업에서 필기 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경제 신문을 읽고,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보며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시험장과 유사하게 타이머를 맞추고 타자가 아닌 제 손으로 경제 용어의 뜻부터 전문 모두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스터디를 구해 최근 시사 주제를 공유하고, 스터디원들의 글에 의견을 나누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면접 전형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직무 면접은 지원 기업의 사업,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참고·분석하여 직무 지식을 쌓았습니다.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다시 훑어 예상 질문을 추려 연관 경험을 정리하고, 면접 스테디에 참여하며 모의 토론 면접, 답변 수정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 누구나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13개의 서류 지원, 5번의 필기 합격, 5번의 1차 면접, 3번의 최종 면접을 치렀으나 19살 12월까지 합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증명하던 ‘하면 된다’는 이제 ‘왜 해도 안 될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해 교실에는 겨우 10명 언저리만 남아 있고, 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실패 원인은 ‘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1차 면접 합격을 3개나 받은 상황이라 50% 인정받은 상태였음에도 제 말투, 외모, 답변 등에 관한 어른, 선생님의 사소한 조언은 저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제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했고, 모두 최종 탈락 소식이란 결과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챙겨주고 도와준 친구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고, 타 기업 지원서를 준비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합격하였고, 근무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식물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모진 말을 해도, 남들이 앞서나가는 것 같아도 나만의 방향과 속력을 조절하여 준비하다 보면 ‘나’라는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 믿습니다.

### 🔍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나

입사 후 동료분들께서 ‘학생 때가 더 좋았죠?’ 하고 여쭙보시면 ‘음... 아니요’라고 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저는 소속된 곳이 없는 불안함 대신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퇴근 후 운동하고, 저녁을 요리하고,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 고마운 지인들과 커피 한 잔 하기처럼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학창 시절 동안 꿈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재능이나 가정 환경 같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원망한 적도 많지만, 그때마다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일도 서툴고 타지에서 적응하던 20살보다 21살이 즐거웠고, 저를 알아가던 21살보다 22살이 더 즐겁습니다. 저는 곧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선택하여 23살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예정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결국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즐거운, 제 선택을 믿으며 과거의 다짐을 이루는 중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어쩌면 취업 준비생 시절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종종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주변에 기대기도 하고, 장점은 더 돋보이게, 단점은 보완하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고졸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모든 분도 더 나아질 본인의 미래와 선택을 믿고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고졸자를 위한 아무지고 행복한 구직활동 2025

강원랜드 | 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상반기에 고졸 채용 전형 채용형인턴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박○○ 사원입니다. 저는 3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카지노 본부 소속으로 '딜러' 직군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빠르게 사회에 진출해 경험을 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 선택을 해준 과거의 저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취업 준비 중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를 통해 실패는 최소화하시고 경력의 첫 단추는 잘 끼우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합니다. 지인들이나 초면인 사람들과 만날 때 저의 직장과 직업을 소개하면 '카지노'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립된 시장형 공기기업입니다. 카지노 사업뿐 아니라 호텔, 리조트, 레저 시설 운영까지 폭넓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탄탄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설립 취지에 맞춰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등등 정부 정책의 알맞은 행보에 발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 회사는 체험형·채용형 인턴을 블라인드 채용 및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경력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리스크 없이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체험형 인턴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 경험을 쌓고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했는데 인턴 경험이 면접은 물론, 현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선택과 집중: 전공 공부 대신 본인을 발견하는 과정

저는 물 흐르듯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저는 학문을 배우는 재능이 부족했고, 현실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저에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17살 때부터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편의점, 베이커리, 배달, 웨이터 등등 다양한 일을 하며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유료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스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방향성을 가져갔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제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어렵거나 방어가 기제가 발동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력한 권유 또는 강요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돈, 감정을 투자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찾지 못했고 저는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저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고졸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중소기업도 대졸자만 뽑는다’ 등등 대학 학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고졸 채용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큰 이익과 인기를 얻는 변칙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한 인식이 다소 희석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류에 편승하는 안락함보다는 강함을 원했고 스스로 옥타곤의 코너로 저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생업에 뛰어들면서 사업과 장사를 하셨고 팔순이 넘은 지금도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십니다. 저는 조

부님의 공격적인 삶의 방식을 늘 동경해 왔고,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학벌이 좋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졸자들과 비교되는 고졸 출신들의 장점은 고교 재학 중에도 NCS 및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있다는 점, 대학 생활 대신에 공공기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영역에 대한 충분한 경력과 시드머니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시장에서 중고 신입이라는 타이틀은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구점으로 작용하였고 저 또한 그러한 고졸 전형의 특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 면접론: 나를 알고,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

사업, 취업, 영업, 연애, 게임 등등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계획이 필요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막막하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군 제대 이후에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알바 면접을 본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면접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자에게 질문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범 답안의 질문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답변하려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정석적인 오답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 의사소통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면접자가 듣고 싶어 하는 정답을 가져와서 맞추려고 하니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고 다음 질문으로 가기도 전에 꼬리 질문으로 면접자에게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 면접관에게 어필하고 싶은 강점은 모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허허실실 전략, 앵커링 효과, 권위 편향, 사회적 증거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메라를 켜고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반년 정도 OOTV에서 게스트 방송을 진행했고 얼굴을 공개하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의 모습을 찍었는데 사전에 완벽하게 짜인 대본을 보면서 읽는 내용인데도 눈빛, 말투가 처참하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어서 10분 남짓한 동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쉬는 시간 없이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아마 처음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 매우 낯설고 내가 저렇게 말을 더듬나 싶을 정도로 언변이 처참할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을 녹음하시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피드백은 없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의 보이는 모습을 교정했다면 다음으로는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접장에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기본에 해당한다면 질문에 어떤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저는 인생의 정도를 찾고자 나름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경험을 겪으며 현재 저만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의 종착지는 행복 추구이며 사람마다 최대 행복을 느끼는 분야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 명예 등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최대의 행복이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극상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권위가 있고 작은 각도지만 인생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인격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는 오판과 착각도 많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난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비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오판도 있었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이 문제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자아는 명확해지고 가치관은 견고해졌으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나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나한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본인의 사상과 가치관이 견고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본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아도 말을 더듬어 가면서라도 면접관에게 본

인의 이야기를 가식 없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식 없는 진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생 선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영역의 끝에 도달하면 화려함이 단순함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은 오차 없는 직선이 아닌 어지러운 곡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면접관과 면접자라는 구도를 조금만 벗어나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잘 포장된 화려함보다 투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5

## 진심으로 달려온 494일, 그리고 합격

한국환경공단 | 유○○



“축하합니다! 유○○님은 2024년도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구명조끼 하나 없이 ‘취업’이라는 거센 파도 속을 헤엄쳐야 했습니다. 불안했고 때로는 버거웠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번의 도전, 5번의 필기 합격, 3번의 최종 합격을 거쳐, 현재 2024 상반기 한국환경공단 고졸 전형을 통해 입사하여 2년 차 근무 중인 유○○ 주임입니다.

 모두가 대학을 꿈꿀 때, 저는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대학이 아닌 ‘취업’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학 진학을 당연하게 여길 때 상위 20%의 성적으로 인문계 진학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지만, 저는 매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대학을 가하지?”, “막대한 입시 경쟁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끝없는 고민 속에서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선택을 내렸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먼저 사회에 발을 디디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미래의 그림을 그려 가기로….

## 🔍 편견 속에서 저만의 기준을 세워 나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량한 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교’..., 입학 전까지 이런 편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생각 때문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입학해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업에 열정적인 친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저는 전교 2등, 상위 2%의 내신 성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제 역량을 점차 넓혀 나갔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방과후를 여유롭게 보낼 때 저는 교실에 남아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NCS 공부와 면접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기에 때로는 그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 🔍 쉽지 않았던 고3,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돌입하면서부터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5개가 넘는 지원서를 쓰고 수없이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들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불합격이라는 문 앞에 좌절하면서도, ‘나를 뽑지 않은 회사가 후회하게 만들자’라는 다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1번’이라는 결과를 끝으로 고등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도 제 마음속엔 끝없는 아쉬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 자리 차이로 이루지 못한 최종 합격의 꿈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다른 길을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나는 네 선택을 믿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믿지 못해 흔들리던 순간, 누군가는 제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 다시 시작한 취업 재도전,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며...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기업 재수.

다시 한 번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라는 보호받던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변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후회는 오롯이 제 몫이었기에 이 선택은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안감도 컸고,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대화 속에서 제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어요.

그렇게 노력의 시간이 쌓이며, 긴 재도전의 끝에 2024년 6월, 세 곳의 공기업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느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면접 당일, 그동안의 준비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바로 그 생각

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면접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한 답변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답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감이 오히려 저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제 생각과 경험을 최선을 다해 풀어냈습니다. 그 누구의 삶이 아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했기에, 그 진심이 면접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 그리고 마침내, '합격'이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저는 세 기업 모두에서 '최종 합격'이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지나온 순간들이 스쳐지나가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입사 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 앞에서 주저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져온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고3 시절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성취에 감동하며 다시 일어섰던 그 시절의 나. 물론 사회생활은 학교와 전혀 달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졸 신입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50년 가까이 정년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선취업 후진학'의 선택처럼, 이제는 직장 안에서 경험을 쌓으며 앞으로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으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경험이 결국 큰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작은 도전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물론 지금은 불안하고 조급하고, '과연 될까?' 싶은 순간들이 반복될 겁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내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때론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의 계단이 됩니다. 저 역시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한 걸음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안 속에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뒤돌아보며 '나 진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5살, 다섯 번째 회사와 대학생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



중학교 3학년이던 저는 명확한 꿈이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노력도 따르지 않았고, 그저 '다들 하니깐'이라는 이유로 따라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업률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렇게 선택한 특성화고 진학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말에는 무임금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이곳은 내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1주일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준비 없이 덩벼들었던 과거의 저를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자격증과 NCS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한국사 1급을 취득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까지 갔던 첫 공공기관에서 신입 채용이지만 경력 위주의 질문을 받으며 회사가 중고 신입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의 필요성을 느꼈고, 곧바로 공공기관 인턴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졸 인턴으로 5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에서 자취하며 공공기관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고졸 인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조직문화를 경험하며 제가 꿈꿔 왔던 공공기관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고, 공공기관 입사를 꼭 해내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소득 창출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운 인턴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NCS 공부를 이어간 끝에 근로복지공단 고졸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설렘이 컸지만 처음 맡은 민원 응대 업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민원 응대 속에서 지쳐가던 저는 진심으로 ‘내게 맞는 조직은 어디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고등학생 때부터 제일 입사하고 싶었던 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전했습니다. 두 번의 서류 탈락과 두 번의 면접 탈락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면접 준비 과정에서는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혼자 카페에 남아 연습하며 절실함으로 임했습니다. 5번째 도전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지난 시간의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25학번 대학생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학과에 진학한 후 학업의 즐거움을 느꼈고, 금융경제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이면 업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지하철을 타야 했고, 도서관에서 자정이 넘도록 집에 못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경야독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세계를 들으며 오히려 인생을 배우고 제 시야가 확장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졸업 후 무역이나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대졸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졸 채용 인원이 많고 근무 안정성이 높아 취준생에게 특히 인기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형별로 정리하였고, 이 방법이 많은 취준생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류전형 - 7배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상황 설명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아닌 "목표 기간을 정하고 하루 일정표를 만들어 실행했습니다."와 같은 행동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자격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한국사능력검정 1급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 필기전형 - 2배수

고졸 채용의 필기시험은 대졸 전형과 동일하게 NCS와 「건강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는 건강보험공단 전용 모의고사를 풀며 문제 유형을 익혔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건강보험공단 NCS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대신 「건강보험법」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류 합격 이후에는 법령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법령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웠고 그 결과, 필기시험에 세 번 연속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면접전형 - 1배수

저는 건강보험공단 면접에서 두 번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연속 탈락한 이유를 복기하였고, 세 번째 면접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면접관의 입장에서 제 답변을 점검했습니다.

면접은 경험행동·상황·토론 면접 형태로 나뉩니다.

- 경험행동면접: 자기소개서에 적은 경험을 육하원칙에 따라 나누어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상황면접: 인터넷에서 질문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제일 좋은 답변이 무엇일지 생각하였습니다.

- 토론면접: 저는 스터디를 통해 토론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도 말을 조리 있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토론면접은 꼭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턴 경험은 채용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만 하는 인턴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인턴 시절, 단순한 행정보조보다는 현장 분위기나 업무 흐름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얻은 경험은 면접장에서 가장 확실한 ‘나만의 답변’이 되어 주었던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공기관 입사 수기를 쓰게 된 이유는 취준생 시절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전시된 공공기관 입사 수기를 읽으며 그 꿈을 키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과 동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앞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불안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결국 그 시간이 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며,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의미 있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제 인생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I

### 블라인드 채용

- 1 11년, 대학 졸업에서 채용까지 걸린 시간
- 2 포장을 못하는 청년, 직무능력으로 정면 돌파하다
- 3 스펙보다 진심으로, 언어에서 지식재산으로!
- 4 학력란을 빼고 역량란을 채우다
- 5 마흔이지만 신입입니다
- 6 직무 선택, 직무 전문화를 거쳐 확장까지, 직무능력중심 채용

## 11년, 대학 졸업에서 채용까지 걸린 시간

국가철도공단 | 정○○



‘30대 중반, 경력 없음’, 이것이 취준시장에서 보는 나의 첫인상이었다.

전공인 토목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 특별히 개발 중인 신흥국에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갔다. 한국, 중국, 한·중이 진출한 제3국을 포함해 어디서든 일할 기회가 제공되리라 믿었다.

중국에서 언어도 배웠고, 전공과 상관이 없는 일도 했고, 바라던 대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중국은 가을학기 입학이라 기다리는 6개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스라엘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도 했다.

경력이라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지만 공대생으로 영미권이 아닌 국가에서 새로운 언어로 7년을 보낸 것은 나름 가치 있는 도전이었고 시야가 확장되는 신선한 기회였다.

하지만 내 경험은 흩어지는 구슬같았다. 전공과 무관하고 일관성 없는 파편들은 한 실로 꿰어지지 않아 경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다. 석사는 취준생에게 애매한 학벌이었고, 수학 기간을 제하더라도 10년 가까이 되는 공백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 Intro. '공백'과 '나이'라는 걸림돌

토목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었다. 32세, 석사를 마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화장실 1개 딸린 소형 아파트에서 중국인 15명과 살았던 8개월, 입석표도 겨우 구해 19시간 열차를 서서 탔던 경험, 칭짱열차로 해발 5,072m 탕구라산을 넘었던 티베트 여행,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미사일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 휠체어를 끌고 할머니들과 방공호로 대피했던 일, 이외에도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경험이 많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7년은 취준시장에선 '공백'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경험을 통한 정성적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면접은 채용의 마지막 단계였고, 이런 무용담마저 전공과는 명확한 연결점이 없었다. 채용 과정의 맨 처음인 서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나이는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연구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단기채용까지 쓸 수 있는 입사지원서는 가리지 않고 썼지만 서류가 통과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스펙 타파', '경력 무관', 반짝이는 시도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이가 한국 채용시장에서 얼마나 결정적 요소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 33세 백수: 블라인드 채용, 내게 남은 마지막 카드

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알게 되었다. 직무 능력만 갖추었다면 학력, 외모, 나이, 성별, 모든 게 무관하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였다.

과거 대학생 시절 공공기관은 학벌, 학점, 전공, 영어, 대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아 감히 넘보기 어려운 '신의 직장'으로 불렸는데, 채용 스타일이 완전 뒤바뀌어 있었다. 별도의 '이력' 없이도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다면 서류과정을 통과하여 필기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백수 생활 반년 만에 처음으로 문턱 하나를 넘었다.

## 패착 1. 무작정 NCS 공부 먼저

나이 많은 취준생이라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정보력이 뒤쳐졌던 나는 NCS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와 전략은 있어야 했다.

처음으로 필기를 본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당시 철도공사 필기는 NCS 100% 전형이었다. 기사 자격증도 없었고, 전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NCS만 보는 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노하우는 없어도 우연히 로또처럼 한 번만 통과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때도 NCS만 보는 기관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지원 직렬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느끼고 대부분 NCS+전공 추세로 필기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로또는 없었고, 최종합격까지는 4년이 걸렸다.

### Q 34세 인턴: 이 나이에 인턴? 오히려 좋아

나이를 감출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내게 열린 마지막 문이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했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 내가 과연 부합하는 사람인가라는 점이었다.

해외에서 도전적으로 살던 내가 정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공공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보다 어린 선배들과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어려워하진 않을까?

어차피 늦었다고 하니 일단 경험해 보고 결정해도 더 늦을 것이 없었다. 내 눈으로 관찰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34세 청년인턴은 막차라도 오히려 기회였다!

”안녕하십니까, 인턴사원 정○○입니다!”

인사를 하고, 처음 나이를 알게 되면 약간 멈칫하는 눈치이기는 했다. 하지만 의외로 나이는 현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가 다르니 그저 내 직급에 맞는 일을 하면 될 뿐이었다. 그건 정규직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일은 직무로 하는 것이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었다!

## 모수 1. 공공기관형 인재인가? 인턴으로 TEST

공공기관이라고 고리타분하지만은 않았다. 인턴을 하면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수행을 위한 더 나은 방안,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었다.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몇진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었다. 서부발전에서 인턴을 할 때는 고졸채용으로 만 20세가 안 된 사원이 있었는데, 나는 14살 차이 나는 그분께 직무능력은 물론이고 차장님, 부장님들을 대하는 유쾌한 태도도 배웠다.

일을 할수록 더욱 실감한다. 공공(公共)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높은 기준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식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 패착 2. 준비 안 된 필기시험

첫 인턴 당시 동기들이 한두 명씩 합격하기 시작했다.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주말마다 시험을 보러 다녔다.

기술직렬은 기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니 기사와 최소한의 자격증(토익, 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만들어 놓고 필기를 보아도 늦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어차피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토목기사를 준비했다.

## 🔍 35세 취준생: 약점은 오히려 동력이다

공공기관 인턴을 두 번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의외로 나이든 취준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전문직이나 고시,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나이만 차고 경력은 없는 친구들이 특히 많았다.

비전공자로 타 직렬에 지원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이 경우 대부분은 졸업 후 다른 분야 기사 취득을 준비해서 나이도 적지 않았다.

공부 이외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과목 학점이 없어 면접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년인턴은 직무 역량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였다.

스스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상하게 많았다. 결론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A매치 금융 공기업, 발전 공기업, 수도권 공기업 등 다양하게 제 길을 찾아갔다.

살펴보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막다른 길목에서 만난 마지막 길이라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나이, 학벌, 경력이나 경험 등에서 약점을 가진 취준생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

## 묘수 2. 온·오프라인 스터디

(온라인)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 모르는 전공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핸드폰 너머의 누군가와 정보를 공유했고,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스터디를 구해 순공시간 인증 스터디에도 참여했다.

(오프라인) 인턴동기들과는 퇴근 후 스터디를 했다. 지원하는 직렬이 제각각이니 전공을 함께 공부할 순 없어도, NCS는 도움이 많이 됐다. 공대생이라 정형화된 수식으로 풀기만 했던 수리영역에서 특히 문과 친구들의 잔머리는 도움이 많이 됐다.



## 36세 취준생: 경쟁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취업 준비 3년 만에 드디어 면접을 가게 되었다. 지방공기업(경기주택도시공사)이었는데, 1차 면접은 PT와 토론, 2차 면접은 NCS 기반의 인성면접이었다.

면접 스터디를 구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스터디는 같이 해야 하지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먼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리저리 손품을 팔았다. 후기를 찾아 댓글도 달고 자료 요청도 했다. 재직자들은 취업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니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메일을 남기면 답장을 보내주는 분들도 간혹 있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재직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속해서 용기내서 말도 걸었다. 너무 감사하게도 개인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었다.

### 모수 3. 스터디에선 퍼주고 더 퍼주자

먼저 취업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정보에서 합격, 불합격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인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정보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다. 스터디 분위기가 전환되고 시너지 효과가 생겼다. 모의 PT나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피드백에 대한 수용도 쉬웠고, 다들 매우 빠르게 실력이 늘었다. 답변 내용과 비언어적 습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오가도 그것이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임을 느꼈다.

### 모수 4.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면접 스터디를 하다 보니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인지 '무엇을 했다'에 초점을 맞춰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NCS 기반의 면접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라기보다 경험의 '계기, 생각, 역할, 적용, 결과' 등의 인사이트였다. 작은 경험이라도 경험을 통한 통찰을 확장하면 공공기관 면접은 그리 높은 허들이 아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관련 의도를 파악하면 좋다.

#### (NCS)

- 모듈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go.kr: NCS통합-직업기초능력)
- PSAT형: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 (면접)

- 국가직무능력표준(ncs.go.kr: 공정채용-채용모델 면접문항 등)

아쉽게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종에서 떨어졌다.

3년 만에 간 면접을 언제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예상 외로 다음 면접은 30여 일 만에 소식이 들려왔다.

전공이나 NCS는 한 번 해 놓으면 빨리 휘발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공은 너무 당연하고, NCS를 통해 학습한 공문서 작성 서식이나 지문에 나오는 사업관리 내용들은 실제 업무에서 다룰 법한 것들이니 학습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NCS가 직무능력시험으로서의 유용성은 취업 후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더욱 실감한다).

### 36세 신입사원: 애매함의 유익

적잖은 나이는 때로 유익을 가져다 준다.

어렸다면 흔들거렸을 어떤 것이 의연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포레 차장님들과 띠동갑 동기들 사이에 끼인 것 같은 애매함이 양측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배울 게 많은 다정한 분들과 일을 해서 어려움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그렇듯 현업에서 오는 이따금의 스트레스에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더라'하고 돌아보면 금방 해소된다.

상대적으로 나이 차이가 덜 나니 너무 어린 사원들보다 편하게 대해 주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이가 때로 장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 40세 대리: K-건설기술을 들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기를 꿈꾸다

인프라를 건설해서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철도공단의 일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비행기를 타야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내가 육로로 나라 간 경계를 넘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육로인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업무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설계사, 지자체, 국토부, 기재부 등과 'One-Team'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껌을 씹어 넘으려면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다!

나의 취준 경험도 나처럼 나이가 많거나 느리거나(취준 기간 약 4년),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벽을 허무는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 Outro. 직무중심 채용의 다른 말. 방향할 자유, 도전할 자유!

너무 멀리 왔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졸업은 했지만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게 느껴져 다른 길을 두드려 보고 싶은 사람들, 어느 순간 삶에 의욕을 잃은 은둔형 청년들, 잠깐 쉬다는 것이 길어져 버린 사람들. 방향할 자유조차 허용하는 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혹은 전문직을 준비하다가 경력도 없이 나이만 많아진 고시생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창업을 도전했다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 길을 잃은 사람들. 하지만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은 도전할 자유를 언제나 허용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있는 한 늦음, 느림, 늙음도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취준생일 때는 자신의 약점이 제일 커 보이는 법이지만, 생각보다 블라인드 채용은 내가 단점이라 여기는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 누구나, 언제든지, 일할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도 좋다!

## 포장을 못하는 청년, 직무능력으로 정면 돌파하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김○○



‘지방대 출신, 3점 초반 학점, 인턴 경험 없음.’

졸업을 앞둔 나를 설명하는 말이었다. 사회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늘 작아졌다. 친구들이 공모전, 어학연수 등 다양한 스펙을 나열하며 미래를 이야기 할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갉아먹었고, 도전조차 두려워졌다. 게다가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리는, 소위 ‘무대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학 입시조차 수능 성적만으로 치른 ‘정시 전형’이었기에, 면접이라는 경험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내 성격과 강점이 어떤 일과 연결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 막막함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안전성평가연구소’ 채용조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공공기관은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 앞섰다.

기관의 약 6천 개 자산을 일일이 스캔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다소 지루할 수 있음에도 이 업무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을 무기로 업무를 수행했다. 주어진 일정을 절반에 가까운 시간 만에 끝내고, 남은 기간에는 물품 검사나 계약서류 스캔 등 다른 직원들의 일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문서를 읽다 「국가계약법」이라는 단어를 접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에는 모든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단순히 지시 받은 일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업무라 생각했던 것들도, 원칙이 있고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수록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익숙해진다면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억을 계기로 나는 한국화학연구원 구매자산실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검수, 자산, 지급발의요청 업무를 보조하며 한 장의 서류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규정과 증빙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직접 서류의 초안을 작성했다. 공공기관의 일은 단순한 행정이라 법과 규정, 절차 속에서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꼼꼼함과 책임감이 여기에 맞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다. ‘공공기관에서 구매·계약 업무를 제대로 배우자.’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대부분의 기관은 여전히 ‘일반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을 뽑았고, 면접은 여전히 나에게 큰 부담이었다. 몇 번의 탈락을 거듭한 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구매자산실 인턴 공고를 보았다.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준비했다.

이력서에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거짓이 없게, 면접장에서 비록 말은 어눌해도 내가 느낀 흥미와 배운 점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과는 합격이었다. 공식적인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통과한 합격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다.

인턴으로서의 6개월은 짧았지만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MRO(소모성 자재) 업체 관리, 검수 지원, 계약 서류 정리 등 실제 계약 절차를 가까이에서 보며 공공기관의 내부 프로세스를 온몸으로 익혔다. 내 손끝에서 처리된 서류 한 장이 ‘국가 예산’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주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내 안의 자신감이 조금씩 쌓였다. 비로소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왜 필요한지를 체감했다.

그러나 인턴 기간이 끝나자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야 했다. 수십 번의 지원과 반복되는 불합격. 면접장에서는 여전히 내 목소리가 떨렸고, 답변은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꾸며내지 않았다는 점이 내 장점이라 믿었다. 포장은 서툴렀지만, 내 말에는 실제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계약직 채용에서 결실을 맺었다. PT면접에서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통해 배운 점을 PPT 한 장 한 장에 정리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었다. “공공계약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신뢰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면접장에서 내 말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정식 직원으로서 첫 출근 날, 팀장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1년이라는 짧은 계약기간 동안 우리 기관에도, OO씨에게도 윈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책임감이자 격려였다. 물품 수의계약과 MRO 도입 보조 업무를 맡으며, 한 단계 더 깊이 계약 절차를 이해하게 됐다. 처음엔 서류 한 장 작성에도 긴장했지만, 기록하고 정리하며 차근차근 익혔다. 일이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업무가 주어졌다. 용역 수의계약, 입찰 계약, 대관 대응 업무까지 맡으며 ‘일을 잘하면 일이 늘어난다’는 말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건 내게 불만이 아닌 신뢰의 증거였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정규직으로, 계약 전문가로 성장하자.’ 그러던 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구매계약 담당자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한 글자씩 눌러 썼다. 그동안의 경험을 꾸밈없이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표현했다. 서류 합격, 필기 합격. 이어진 1차 토론면접의 주제는 ‘행사용역 공고문 작성 방안.’

나는 돋보이기보다는 정확한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다른 지원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종이 위가 아닌 말로 공고문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을 조용히 정정하며 말로 쓰여진 공고문에 마침표를 찍었다. 화려한 언변 대신, 내가 실제로 해왔던 절차를 기반으로 논리를 세웠다. 면접관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고, 그 눈빛에서 신뢰를 느꼈다.

며칠 뒤 최종면접이 열렸다. 돌이켜 생각하면 다대다 면접장에서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나뿐이었다. 면접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못하

고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실제 경험을 근거로 차근차근 대답했다. 떨리던 목소리 속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면접관이 살짝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는 직무능력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최종 면접이 끝난 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용역 입찰공고문을 작성하고 최종 점검을 하는 동안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다.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옆 자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합격했어요.” 라고 말하자, 팀원들은 내 일처럼 기뻐해주었다. 그 따뜻한 축하 속에서 내가 쌓아 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업무 과정을 문서화했다. 그게 내 방식의 ‘마지막 인사’였다.

돌이켜 보면 나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대신 경험으로, 결과로 나를 증명했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목소리가 떨렸던 순간도 많았지만, 내 대답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블라인드·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제도는 학벌이나 점수가 아닌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했다. 그 기회가 내 삶을 바꿨다.

누군가는 블라인드·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 직무를 이해하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제도보다 공정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일원으로서, 나처럼 포장에 서툴지만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고,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청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장치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포장을 잘하지 못하는 청년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일을 대할 때 진심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 준 건, 다름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었다.”

## 스펙보다 진심으로, 언어에서 지식재산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김○○



### 1. 공정한 채용이 열어준 첫 문

졸업을 앞둔 어느 여름, 제 인생을 바꾼 한 줄의 공고를 보았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출신 학교나 학점이 아닌, 오로지 직무 능력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점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펙 경쟁이 치열한 시기였지만, 조건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기회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방대 언어 전공자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지식재산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지만, 전공 언어와 영어로 현지 시장의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업무라면 언어를 통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보다 실제 플랫폼을 분석하고 언어로 위조상품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배운 언어가 단순한 학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구나.”

## 2. 낯선 분야에서 배운 첫 책임

처음 지식재산 보호 업무를 맡았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언어를 전공한 저에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낯설지만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업무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상품을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하고, 사진과 설명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와 문구 속에서 정품의 세부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은 언어 감각과 관찰력이 동시에 필요한 세심한 작업이었습니다.

언어를 전공했던 제가 그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분석’이라는 능력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체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상품을 검토하다 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작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내가 올린 한 건의 정보가 한 기업의 브랜드를 지켜낼 수도, 잘못된 판단이라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등록할 때마다 ‘이게 정말 위조인가?’를 스스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의 기준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현장감’이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브랜드가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그 기업의 이름이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시장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지식재산 보호의 첫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계약직 주임으로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계약직으로의 도전, 실무 중심의 성장

모니터링단 근무를 통해 처음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모니터링만으로는 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그

래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약직 주임 채용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계약직 주임의 주요 업무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가품 정보를 최종 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어와 영어를 활용하여 신고 자료를 작성하고 해외 플랫폼에 차단 요청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 능력과 분석력, 그리고 꼼꼼한 행정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직 신분이었지만,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결과의 정확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재택 인력의 교육·인사 관리·급여 정산·예산 집행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까지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받은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계약직 구성원 중 1위로 우수사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과보다 더 기뻐던 것은 제 업무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조직의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 낸 결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후 정규직 도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공정한 제도 속에서는 노력의 깊이가 곧 성장의 속도'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의 무대에 서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정규직 공개채용에 도전했습니다. 내부 전환이 아닌 공개 경쟁이었기에 그동안의 경력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언어 전공자였기에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무와 병행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새로 취득했습니다.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마다 과제를 제출하며, 상표권과 디자인권, 특허권 등 실무 이론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이론과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자, 그동안의 업무가 완전히 다른 시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 “이 일을 왜 계속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안심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때, 저는 제 일이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 대답은 제 모든 시간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다시 한번 공정한 제도가 제 성장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 5. 변화 속에서 성장하다 - 조직 운영과 AI 전환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저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180명 규모의 재택 인력을 교육·검수·평가하며, 모든 인력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보고서 양식과 검수 절차를 표준화하고, 성과 관리 지표를 수립하여 조직 전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듬해 기관은 기존의 단순 모니터링 사업을 AI 기반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절차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시스템은 전면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사업의 안정화와 체계 구축을 주도한 핵심 실무진으로 일했습니다.

AI 기반 차단 시스템이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도록,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Help-Desk를 운영해 문의와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시기였던 만큼, 예산 집행부터 평가 체계까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각 단계를 체계화했고, 결국 AI 차단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정착하여 기관 내 ‘AI 활용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사업 담당자를 넘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 실무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저는 그해 두 번째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한 제도를 통해 기회를 얻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 6. 해외에서 시작된 또 다른 첫걸음!

태국 방콕 센터 파견 근무자 모집 공고, 처음부터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공정한 기회는 도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신념으로 응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사무실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매일 현지 기관을 방문하며 협조를 구하고, 대사관과 유관기관을 연결하며 기반을 하나씩 세워 나갔습니다. 태국 지식재산청, 세관, 식약청 등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하며 한국 브랜드 보호의 현지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지 공무원과 한국 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기관의 파견 직원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의 대표 인재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7. 공정한 채용이 만들어 낸 선순환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출발점은 한 장의 블라인드 채용 공고였습니다. 그 제도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시작해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해외파견까지, 공정한 제도는 제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이자 사회의 신뢰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정한 채용은 단순히 평가의 공정함이 아니라 누구나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제 일터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 7. 맺음말 - 누군가의 첫걸음을 위하여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불안과 고민 속에서 첫걸음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스펙보다 가능성이 작게 보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공정한 제도 속에서는 노력의 깊이가 결국 기회的大小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문은 언제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기회를 믿고 내딛은 하루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섰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첫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학력란을 빼고 역량란을 채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 김○○



### 1. 블라인드 채용이 열어 준 새로운 가능성

대학 중퇴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던 시절, 저는 늘 취업 시장에서 한 걸음 뒤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른 중반을 넘긴 나이에 변변한 학력도,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는 저에게 정규직 취업은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학력란과 경력란을 채우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느꼈고, 서류에서 탈락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블라인드 채용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학력과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란도, 학교명 기재란도, 생년월일이나 가족관계를 쓰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출신 배경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가진 자격증과 경험,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열정만을 담아 지원서를 완성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나 환경이 아닌, 현재 갖추고 있는 역량과 미래를 향한 의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입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일용직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저에게 단순한 채용 제도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 2. 실무와 직결된 평가 시스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직무와 직결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철저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습니다. 한국사, 한국어, 외국어, IT, 전기 관련 자격증 등 각각의 자격증이 명확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화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 목록에 포함된 IT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것은 입사 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전공시험과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나뉘었습니다. 전공시험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공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응용 등 실무 중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사전에 상세히 공지되어 있어 준비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이 과목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실무를 위한 공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은 고객의 전기설비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전기기기와 회로이론은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고객에게 단순히 ‘고장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고장 원리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자원관리, 문제해결, 정보능력, 조직이해, 수리능력 등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사 후 그 중요성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분들께 쉽고 명확하

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였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점검 일정을 계획하고, 점검 시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관리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하루에 50~60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선을 최적화하고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문제해결 능력은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정보능력은 현장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직이해 능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조직의 목표와 절차를 이해하고 협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수리능력은 전기 용량 계산 등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당연히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결국 시험에서 평가받은 모든 능력이 현장업무 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3. 현장에서 빛을 발한 실무 경험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 점검과 재난안전 관련 업무로, 국민의 전기안전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을 점검할 때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은 농촌 지역의 오래된 마을을 점검할 때였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배선, 용량에 맞지 않는 차단기, 작동하지 않는 누전차단기 등 위험한 설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에 즉시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고객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경험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인정받았고 실제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4. 능력으로 쓰는 새로운 이야기

입사한 지 어느덧 네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단순히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능력으로 평가받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력이나 나이, 경력의 공백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스펙이 아닌 실력, 편견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도전이자 성장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저는 점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합니다. 국민의 전기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주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과거의 부족함이 아닌 현재의 능력으로, 화려한 스펙이 아닌 진실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이곳에서 저는 전기안전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열어준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저는 오늘도 국민의 전기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 마흔이지만 신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 🔍 취업이란 무엇일까?

나는 현재 39살이다. 스스로도 취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기에는 좀 늦은 때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취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10년만 뒤로 돌려보자.

29살의 나는 3년 뒤에는 변호사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4점대 학점, 900점대 토익, 공모전 수상, 대기업의 4년 장학금, 교내 장학금, 대외활동 1년 6개월, 봉사활동 200시간까지 준비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성공했고 이제 3년 뒤에는 변호사가 되는 줄만 알았다.

2024년 4월, 마지막 5번째 변호사 시험에서마저 불합격하고 말았다. 이제는 취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호기롭게 정의구현, 약자보호라는 꿈을 찾아다니던 시절은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야 끝이 났다.

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10년간 법조문과 판례만 읽던 내 머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요즘 취업에 필요하다는 NCS라는 친구와 친해지기란 쉽지 않았다.

“철수가 파란 바지를 입으면 영이는 노란 치마를 입는다.”

“영이가 노란 치마를 입지 않으면 영수는 빨간 바지를 입는다.”

“영수가 빨간 바지를 입지 않으면 광수는 초록 바지를 입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왜 광수에게 초록 바지를 입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할 수만 있다면 광수에게 초록 바지를 입을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 많은 회사의 공고는 어디에서 찾는 것인지?’, ‘사기업과 공기업은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가장 큰 문제는 과연 39세인 나를 신입으로 뽑아주는 회사가 있기는 하는지였다.

### 어둠 속에서 찾은 기회 - 블라인드 채용

먼저 가장 익숙한 회사들에 지원서를 냈다. ○○전자, □□건설, △△중공업까지 뉴스에서든 신문에서든 언젠가 한 번 들어본 회사에는 모두 지원서를 냈다. 나중에는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지원서를 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하는 업무에도 지원서를 냈다.

나는 태어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과를 받았다. “지원자님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지원자님을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료를 내면 시험실에 내가 시험 볼 책상 하나는 놔주었는데, 회사라는 곳은 내가 시험 볼 책상 하나 놔주는 곳이 없었다. 사회에서마저도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없었다. 나를 혼내도 좋고 일을 많이 줘서 야근을 해도 좋으니 나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시험 볼 책상 하나 주는 데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책은행인 ◇◇은행에 합격했다고 했다. 이곳은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나이, 출신 지역, 학교, 성별과 같은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도 않고 오로지 능력만 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시험도 NCS는 필수이지만 법학, 경영학, 경제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나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해서 이미 근무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얼마 뒤 처음으로 내 모니터에는 ‘서류합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칭찬, 사과, 격려가 아닌 다음 일정에 대한 안내와 축하 문구를 볼 수 있었다. 아직 취업 성공이라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 🔍 면접의 성공 -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회사를 보는 눈을 기르자

처음부터 어느 회사만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물론 목표로 하는 회사는 있겠지만 그 목표로 한 회사에 불합격할 경우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다. 내가 살아온 방향과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을 것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뉜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길을 반추해 보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5번 낙방했다. 그동안 내가 해 온 노력 중에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일까? 법학지식일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인턴과 같은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도 스펙을 초월하여 법학지식이라는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라인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다.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눈여겨보는 회사를 찾아보자. 이런 회사를 찾았다면 내 직무능력을 그 회사의 지원동기라고 말해 보자. 이 지원동기는 그 회사에는 그동안 찾아 헤매던 흙 속의 진주로 보이는 귀중한 지원동기가 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내 능력을 알아봐 준 귀하고 귀한 곳이다. 공사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부동산의 법률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토지보상과 개발사업에서는 각종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법」과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매우 귀한 보석처럼 봐준 곳이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한다. '○○공사가 □□공사보다 급여가 좋으니까 더 좋은 회사야', '△△공사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좋은 회사야'라는 생각보다는 내 직무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회사를 찾는 눈을 가져보자. 이 눈은 블라인드,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승리자가 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 🔍 용기를 내자!

10년간 돌고 돌아서 취업에 성공하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입이 된 사람이 지금도 이 글을 통해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 무기를 우리 회사에 필요한 보물처럼 생각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를 꼼꼼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하자.

노력은 가끔 배신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면 세모 모양의 노력과 딱 맞아떨어지는 세모 모양의 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직무 선택, 직무 전문화를 거쳐 확장까지, 직무능력중심 채용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



### 🔍 [인트로] 대기업 vs 공공기관

처음 공공기관 입사를 결심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지인들은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평소 계획을 세우고 학습 범위를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자료를 접하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가 제 성향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 취준 1막. 청년인턴부터 노려보자, 직무 선택

“정○○님은 불합격하셨습니다.”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계속된 불합격 소식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평생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 백수 취준생이 될 것 같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문제일까?”, “NCS는 무엇을 평가하려는 걸까?”를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직무 능력’을 보고자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제게 부족한 것은 ‘직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신입 공채 대신 청년인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 과정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 10개 영역과 세부 역량을 펼쳐놓고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 중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정보 능력’에 강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어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 그리고 대학 시절 여러 팀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대상 교육 지원과 국내 주요 인사 대상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에 합격했습니다.



#### 취준 2막, 사원에서 대리까지, 직무 전문화

“OO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10개월의 청년인턴이 끝나고, 다시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년인턴을 할 당시 선배님께서 제가 가진 세세하고 계획적인 성격이 행사 기획 업무에 적합하다며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준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청년인턴 종료 후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준비해 PCO에 입사, 다양한 공공기관 행사를 기획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 덕분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포트폴리오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희망하던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보고, 다시 취업 준비할 때 정리해 두었던 NCS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현재 제가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를 대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 10개 영역으로 체계화된 NCS는 기본 개념서였습니다. 매년 변화

하는 채용 시장에서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요구하는 바가 정확했고 한결 같아, 처음 시작하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다시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어려움 없이 스스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중학생 대상 교육 운영,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저의 적성을 찾고, 직무 역량을 전문화하며 대리로 승진하였습니다.



### 취준 3막, 직무 능력 확장의 최종 목적지,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홍보만 6년차... 이젠 직무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6년간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 전문화와 성과를 쌓아왔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직무를 확장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준비가 아닌 경력을 바탕으로 한 이직 준비였기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입 채용에 지원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점이 부담이었지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직무역량중심 채용이라는 방식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인재상과 직무기술서를 분석하며, 기존에 가진 온라인 홍보 직무를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와 언론 홍보 직무로 확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자기소개서에 녹이고, 제 커리어와 앞으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류 전형에 합격하여 필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학습 모듈을 공부했고, 직무 논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간행물을 비롯하여 현재 업계에서 이슈인 부분들을 찾아 논점을 정리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대망의 면접,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전형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일지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직무 확장에 대한 의지를 면접관에게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 규모가 더 큰데 왜 이직하시나요?”

역시나 예상했던 질문이 들어온 순간, 직무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과거 온라인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달성한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와 언론 홍보 분야에서 어떻게 직무를 확장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이 많음에도 왜 신입으로 입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나이를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과거 경력을 통해 어떤 역량을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철저한 직무역량중심 채용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아웃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의 답은 '나'인 것 같다

그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최종합격하며 직무 확장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NCS는 타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도 표준화된 방향성을 제시하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직무 역량' 중심입니다. 결국, 제가 걸어온 길이 그 자체로 시험 답안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길을 믿고 도전하세요. 원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Ⅲ

## 장애인 채용



- 1 나의 능력에 날개를 달다
- 2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된다
- 3 한국에너지공단 합격수기
- 4 허리는 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
- 5 다가오는 불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 6 나만의 자랑스러운 경험

## 나의 능력에 날개를 달다

해양환경공단 | 정○○



### 🔍 나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준 해양환경공단

나는 우리 회사에 고마움을 느끼는 여러 사람 중 하나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너무나도 많은 진로 선택지에서 방황하던 나에게 ‘재무, 회계’라는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직무중심 채용’ 덕에 나는 내 장애보다 내가 갖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해양환경공단에서의 체험형 인턴 계약이 종료될 때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았으나 그에 비해 경험이 턱 없이 부족했다. 재무 업계는 직무 특성상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실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더존(DOUZONE)이나 세무사랑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눈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채 10일이 걸리지 않았다.



체험형 인턴 계약이 종료된 뒤, 몇 달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류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애써 그럴 수 있다고 넘겼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내가 무엇으로 인해 탈락하였는지 깨달았다. 굉장히 나를 환영하는 듯한 목소리의 인사담당자는 내가 이력서 하단에 ‘중증 장애인’임을 기재해 놓았음을 알려주 재빨리 이력서의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전화 초반과 다르게 어두운 목소리로 중증 장애인이라 채용이 조금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나 직접 들으니 충격적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 우울해질 무렵,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기뻐서 정장을 입고 달려갔다. 나의 어떤 면모를 강조할까, 회계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기대에 들떴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대해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면접에 부른 이유는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비장애인처럼 생활하는지’ 궁금해서였다.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지, 밥은 타인의 도움 없이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다. 수치스러움을 참고 모든 질문에 응답했고 해당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으나 기분은 좋지 않았다.

중소기업 입사 후에는 더 힘들었다. 장애인이라 불안하던 이유로 3주간 일을 주지 않다가, 테스트로 준 일을 하나 해내니 그동안 밀려 있던 모든 일을 주었다. 그 회사는 공장이 딸려 있는 곳이라, 생산직이 부족하면 사무직도 위생복을 입고 현장으로 차출되었다. 그리고 직무가 크게 정해져 있지 않아 몸 쓰는 일을 하는 때가 많았다. 괜한 죄책감에 서류 업무를 더 꼼꼼히 해봤지만 나 자신이 그 회사에서 바라던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장 즐겁게 일한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봤다. 바로 2023년이였다.



과거에 NCS를 준비한 적이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전공 시험은 빠른 시일 내에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회사가 별로 없었다. 무릎을 다친 뒤로 걷기가 두려워서 그런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때 다니던 회사는 집에서 가깝고,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었다. 나는 이 이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또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자아실현 욕구가 현재의 안정감보다 점점 커져 갈 6월에 나는 공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결심 후의 행동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미 인턴 경력이 있으므로 체험형 인턴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직무교육을 수강했다. 상반기 채용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마땅히 지원할 곳이 없었다. 어느 날, 2023년에 체험형 인턴을 같이 했던 친한 동생의 연락이 왔다. 해양환경공단 일반행정 장애인 채용 공고가 올라왔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기쁨도 잠시, 그 뒤에 들려오는 말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언니 지원 마감까지 세 시간 남았어.”

깊게 생각할 새가 없었다. 노트북을 켜고, 입사 서류들을 챙기고, 기존에 썼던 자기소개서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고, 경력기술서를 썼다. 마감 30분 전에 겨우 제출을 마칠 수 있었다. 큰 기대 없이 기다렸다. 기대를 하기에는 나의 준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약 일주일 뒤, 나는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그날 퇴근 후부터 바로 전공 시험을 준비하였다. 일주일이란 시간은 턱 없이 모자랐으므로 잠을 줄여가며, 점심을 굶어가며 공부를 했다. 그 와중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재직증명서’였다. 팀장의 끈질긴 취조 끝에 나는 공기업에 지원했음을 이실직고한 후 재직증명서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세 시간 자면서 공부해 온 보람이 있는지 합격 점수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로 필기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팀장님의 노골적인 무시가 시작된 것은.

서울 사무실에서 성남 공장으로 종종 오던 인사팀 팀장은 내가 필기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린 순간부터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물론 나도 내 이직 사실을 이렇게 떠벌릴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말 실수를 하여 해양환경공단에 지원했음을 밝혔을 뿐이었다. 이 일이 끝내 대표 귀에까지 들어갔다. 대표와 작은 면담을 했다. 당연히 이직하려고 공표한 사람을 환영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 회사에서 나에게 원하는 만큼 업무를 준 것도 아니었다.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에 설움이 스쳐지나갔지만, 면접을 준비해야 했다. 직무중심 채용이니 나의 경력이나 직무,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생각해냈다. 2025년 들어서 나에게 가장 생기가 도는 순간이었다.

면접 당일, 내가 받은 문항들은 전부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들은 내 장애가 얼마나 일에 지장을 주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발휘하여 본사에 기여할 것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봤다. 면접 보는 내내 ‘장애’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오롯이 ‘정OO’이라는 인간 자체로 인정을 받은 느낌이었다. 내 겉모습보다 능력을 면밀히 바라봐 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약 열흘 뒤, 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나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사직서를 쓰고, 짐을 챙기고, 인수인계를 하고 순식간에 회사를 떠났다. 해양환경공단 인턴 계약 종료 때는 아쉬운 마음이 커서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누구보다 빛나는 눈으로 나는 공장 문 밖을 나섰다. 햇볕이 뜨거웠다.



입사 첫 일주일 동안은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 2년 전의 인턴 근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교육을 오신 직원분들께서 많이 반겨주셨다. 나는 임명장 수여식 때 앉아서 임명장을 받았고, 발표도 앉아서 하는 등 많은 배려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내내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 같은 연수생도, 교육자도 내 장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입사동기’이자 ‘신입사원’이었다. 한마디로 교육은 공평히 받되, 내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았다. 이기적이게도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다. 장애 인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봐주되,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내 의사를 확인한 후 도와 주는 그런 것들.

연수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업무분장을 받았을 때의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직원’으로서 대해주는 부서원들에게 감사했다. 처장님께서서는 개인 면담 때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짝 말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이 부서에서 큰 배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원들과 똑같이 직무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배려와 공정성 모두를 생각해 준 것이다.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그럭저럭 전화도 잘 받고, ERP도 비교적 수월하게 다루며 내가 담당하는 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장애인’ 정OO이 아닌, ‘해양환경공단 일반직 직원’ 정OO으로서, 이 모든 것은 ‘직무중심채용’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직무중심 채용이었기에 나는 내 능력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으로 선발되었기에 사원들도 나의 채용에 수긍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직무능력을 여러 절차를 통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해양환경공단 방제기획처의 사원으로 지내는 것이다.

10월이 되었고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나는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직무중심 채용’이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준 결과이다.

##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내가 가진 지체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움직임이 남들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후였다. 처음엔 내가 가진 장애가 내 인생의 속도를 끝없이 늦추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었다.

20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찾아가 차에 보조페달 장치를 설치하고 매일 2~3시간씩 운전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키가 작은 탓에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아 무척이나 어려웠다. 팔의 근력도 부족해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며 반복한 끝에 약 한 달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꾸준함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배운 이 경험은 내 마음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나 또한 누군가의 가능성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멈추지 않는 준비 - 나만의 속도로 쌓아 올린 도전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채용 공고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직무능력 중심 평가였다. 장애인 채용이라는 단어보다 직무능력이라는 문구가 더 크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가 가진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능력으로 평가받자!’ 그때부터 나의 하루는 취업 준비의 연속이었다. 공단 업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토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여러 분야를 공부했다. 이 과정들은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직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할 때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이동이 쉽지 않았기에 온라인 강의와 전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공부시간을 쪼개 효율적으로 집중했다. 나의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쉽게 피로해졌다. 그래서 나는 공부 방식을 바꿔보기로 하였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오래 하기보다 40분씩 집중하고 10분씩 스트레칭하며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부 루틴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꾸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시험에 떨어진 적도 물론 있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1%라도 내 자신이 발전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꾸준히 입사 준비를 하며 나에게도 면접을 볼 기회가 찾아왔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나에게 물었다. “지체장애가 업무 수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하였다. “제 몸의 움직임은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업무는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속도가 아닌 완성도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나의 진심이었다. 공단의 직무는 빠른 속도로 일처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처리하고 실수를 줄여야 하는 일도 많다.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장애 때문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 내가 그동안 해 온 노력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컸다. 그리고 기다리던 합격 통보를 받던 순간, 나는 장애인으로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은 직원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가진 장애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과 끈기를 키우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순간이었다.

## 🔍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나는 늘 나의 속도를 인정하며 살아왔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었다.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남들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길 끝에는 분명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노력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다. 나 역시 그 평가 위에서 나의 노력을 스스로 증명해 낼 수 있었다.

## 🔍 입사부터 초기 적응까지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입사 초기, 나는 직장의 일원으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눈에 들어온 것은 나와 함께 근무하는 장애인 동료 직원의 노력과 한계였다. 그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고 회의나 전화 응대에서 겪는 불편함이 매우 많았다. 항상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했지만, 회의나 여러 명이 동시에 발언하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였다. 전화 민원도 정확히 들리지 않아 메모로 재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모든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지만, 일의 흐름은 느낄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 말이 나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장애는 업무를 단순히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임을 그를 보며 깨달았다.

그 동료의 모습을 보며, 기술이 조금만 더 뒷받침해 준다면 장애를 가진 직원들도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을 업무환경 속에 접목해 본다면 장애인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시간 자막 회의 시스템의 도입이다.**

회의 중 발언을 AI가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해 화면에 띄워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청각장애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내용을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으로 자동 저장되어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회의에서의 소리를 모두의 언어로 바꾸는 기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AI 전화 자막 보조 시스템의 도입이다.**

민원인과의 통화를 AI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각장애 직원도 전화 응대 업무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 화면에 표시해 주고, 직원이 입력한 답변은 다시 음성으로 변환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 직원의 업무 자립을 돕는 동시에 모든 직원의 민원 기록을 정확히 남길 수 있어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점자·음성 통합 AI 비서 시스템의 도입이다.**

청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직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점자·음성·텍스트 통합 접근성 시스템이 있다면 공공기관의 포용성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결재, 내부공지, 회의자료 등 주요 문서를 자동으로 각 직원의 장애 유형에 맞게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 명의 불편을 줄이는 기술은 결국 모든 직원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다.’

그 동료 직원은 여전히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노력은 나에게 공공기관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공공기관은 단지 장애인을 채용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어야 한다.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평등의 도구다. 기술이 귀가 되고, 손이 되고, 언어가 되어 주는 조직, 그런 일터가 바로 내가 바라는 미래의 공공기관의 모습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합격수기

한국에너지공단 | 장○○



### 1. 논리적 확실성, 어려움을 넘어선 직업적 강점

저의 삶은 2003년 신경모세포종 진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항암치료의 여파로 경증 청각장애가 발생했고, 이는 저의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소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구두 소통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저는 자연스레 시각 자료와 문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집요한 태도를 저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과의 소통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수적인 논리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직업적 강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신체적 어려움과 한계를 직면하면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 올리는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배경은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통찰과 완벽한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2. 실무 경험 기반의 커리어 전환과 목표 설정

한국에너지공단 합격은 철저한 실무 경험을 통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학습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토대로 한국녹색기후기술원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하며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Lucia 프로젝트 리뉴얼과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리뉴얼 과정에서 Vue3/TypeScript 등 프론트엔드 기술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했으며, D3.js 및 ApexChart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시각적 전달력과 결정적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일은 청각적 소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의 논리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REMS) 관련 데이터를 깊이 있게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공단의 주요 사업 영역과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저의 흥미와 확신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사를 심화시키기 위해 관련 대학에 편입하였고, Kaggle 데이터셋을 활용한 Adaboost 앙상블 모델 개발(평균 AUC 0.943 달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역량을 실질적으로 배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면접에서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론트엔드 개발 직무에 대한 열정과는 별개로 업무를 마친 후 취침 중 머리에서 피가 나는 응급 상황을 겪으며 건강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한국녹색기후기술원을 퇴사하고 불가피하게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 업무를 통해 확신했던 데이터 분석 직무로의 전환을 목표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취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AI 데이터분석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3. 데이터 분석 역량의 체계화와 심화 학습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훈련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장이었습니다. 훈련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속에서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를 이끌며 실무 이해도와 소통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썬, 데이터베이스(SQL) 등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다지며 실무에 필수적인 기반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요 프로젝트 및 역량 심화

- 글로벌 시각화 프로젝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를 활용한 Tableau 시각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복잡한 글로벌 지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탐구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을 숙달하며, 논리적 사고를 시각화 결과물에 완벽하게 반영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 웹 기반 구현 프로젝트: Kaggle 리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Next.js와 Supabase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분석 결과를 사용자 친화적인 웹 기반으로 구현하며, 단순 분석을 넘어 서비스 관점에서 데이터 전달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간단한 SEO(검색 엔진 최적화)를 적용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험이었습니다.
- 텍스트 분석 프로젝트: 훈련의 첫 모듈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King of Kings'와 'Kpop Demon Hunters' 리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Selenium을 활용한 크롤링을 통해 확보한 비정형 텍스트를 비평가/관객 평가로 분리한 뒤, 워드 클라우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LDA 기반 토픽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핵심 주제와 감성 흐름을 분석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시각화 전문성 입증: 훈련과 병행하여 Salesforce 주관 Tableau Bootcamp - 입문편 28기를 이수하며 시각화 역량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Tableau 마스터의 방 Q&A TOP 1 및 퀘스트 인증 타임어택 TOP 2를 달성하며 시각화 능력과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의 체계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신뢰성 있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4.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합격 및 인턴십 적응

저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훈련 과정 중 한국에너지공단 채용형 인턴에 지원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소양 교과로 선택했던 취업 특강 덕분에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로 인해 늘 어려움을 겪었던 면접을 모의 면접과 피드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채용 전형의 특성과 대응

- 필기시험: 한국에너지공단 보훈·장애 전형 기준으로 NCS 직무기초능력만을 다루었으며, 문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풀이를 완료하는 속도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유형이었습니다.
- 면접: 면접에는 발표 전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일 제시된 문제를 짧은 준비시간 후에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데이터 분석 문제 접근 방식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데이터 특성, 전처리, 모델 특성, 평가 등 데이터 분석 기초 전반의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비록 면접 당시 발표가 깔끔하지 못했고, 인성 면접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해 질문을 명확히 알아듣지 못해 2번이나 되묻는 불안한 상황이 있었으나 한국녹색기후기술원 경력, REMS 모니터링 경험 그리고 AI 데이터분석 훈련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이 한국에너지공단 데이터 분석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어 최종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10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통계분석실 정보화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론트엔드 개발 및 인프라 경험과 훈련 과정을 통해 습득한 데이터 분석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공통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룹웨어, 협업 툴, 대표 홈페이지 등 공단의 주요 시스템 운영 관리 및 현업 부서의 IT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의 시스템 지식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관점을 결합하여 정보화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동기들과 선배 직원분들께 먼저 저의 건강 상태와 청각장애에 대해 양해를 구했으며, 팀원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업무와 조직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전달해 주거나 대면 소통 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등 제가 가진 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합격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어렵게 얻은 소중한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를 통해 공단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역량을 조직 내에서 발휘할 기회를 찾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허리는 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

국민연금공단 | 김○○



### 1. 흑백세상 전환기

내 인생은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흑백세상으로 전환되었다. 중학교 입학 전부터 허리가 아팠던 나는, 중학교 진학을 위한 건강검진을 통해 ‘특별성 척추측만증’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성장기인 3년의 시간 동안 목부터 허리까지 오는 딱딱한 플라스틱 보조기를 하루 종일 착용하며 사춘기를 보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에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보조기를 열심히 착용했지만 슬프게도 성장이 멈춘 뒤에도 내 허리는 멈추지 않고 조금씩 휘어져 갔다.

“노력해도 난 안되는걸까...?”

이 질문은 내 몸뿐만 아니라 어린 내가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조차 앗아갔다.

무엇을 노력한다 해도 결국 잘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삼켰고, 끝이 없는 암흑 동굴 가운데 갇힌 기분이 들었다.

## 2. 휴학 기간, 나를 마주하다(구제의류 창업의 경험)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대학 입시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해서도 휘어지는 허리는 결국 내 발목을 잡았다. 약해진 허리 탓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려워 대학 진학 2년 만에 중도 휴학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기 친구들은 워킹홀리데이, 체험형 인턴,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할 때, 나는 다시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 재활운동에 매진하였다. 재활운동을 하며 내 몸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마주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기회가 생겼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제의류를 좋아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창업의 아이টে으로 삼아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십 번의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복학 후에도 사업을 병행하였고, 교내 창업 관련 해외 연수도 다녀오며 사업자로서 배움의 경험을 키워 나갔다.

졸업 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고,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며 사회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을 갖게 되었다. 점점 단골도 많아지며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그 순간,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이 오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다 보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레드오션이 되었다.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 볼까? 늦은 것은 아닐까?”

내 나이 30살이었다.



### 3. 핸디캡을 기회로 전환하다 - 직접 찾아 간 새로일하기센터&체험형 장애인 인턴 생활기

우연히 지역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팸플릿을 본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내 의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참여자 중 가장 막내였지만, 모두가 새로운 제2막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동일했기에 함께하는 취업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되어 주었다. 직무적성검사와 취업상담을 통해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는 사무직이라는 직종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

“혹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을 노려보는 건 어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고, ‘장애인인 내가 공공기관에 과연 입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기도 하였다. 취업 관련 카페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하며, 인턴 생활을 통해 공공기관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때마침 공고로 뜬 공공기관 체험형 장애인 인턴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한 번에 인턴에 합격하였다. 나의 핸디캡을 통해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니, 놀라고 벅차올랐다.

인턴으로서 나의 주된 업무는 판결문을 스캔한 후 파일철로 정리하는 업무와 등기부등본 서류 정리 및 민원대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처음엔 회사에서 부르는 직급부터 용어까지 다 어려웠지만 많은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또 민원대에서 다양한 민원인들과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어르신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했던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사업을 하며 사장님들과 자주 이야기했던 4대보험 중 한 곳이었던 국민연금공단에 점차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4. 국민연금공단 취업성공기 - 청년지원정책 활용편

인턴 생활과 함께 나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병행하였는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출퇴근길에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는 NCS 필기 공부를 하였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2024년 국민연금공단 신규 직원 장애인 전형에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20대의 절반은 사업을 하며 취업의 경험도 없을뿐더러 장애인으로서 불편함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근무 형태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나의 마음을 지원서에 녹여 답았다.

이후 지원서를 제출하며 알게 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은 수많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꼭 붙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류전형의 결과를 기다렸고, 10배수 안에 들어 서울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치르러 갔다. 빠르게 문제를 풀던 습관 덕분에 시간 내에 무사히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었고,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 후 가장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되었다. 대학 입시면접 이후로 오랜만에 하는 면접 준비과정은 많이 떨렸고 어려웠다.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며 현재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지 공부하였고,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 토론면접과 상황면접에 대비할 수 있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녹음한 뒤 인턴 출퇴근길에 돌려보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 고쳐 나갔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의 AI 모의 면접실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배울 수 있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면접정장을 대여받아 면접 당일 전주 본사로 향하였다. 늦은 오후시간대의 면접이었지만 긴장되는 마음에 아침 일찍 도착하였다. 크고 멋진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모습은 나를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길고 길었던 면접을 무사히 마친 후 긴장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일을 기다렸다. 수험 번호를 입력한 뒤 심호흡을 하고 ENTER 버튼을 눌렀다.

‘최종합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장애 전형으로 최종합격한 것이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중학생 시절부터 그간 3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장애를 만나 한순간 흑백 세상으로 전환되었던 나의 세상이 희망과 도전이라는 빛을 좇아 길고 길었던 암흑동굴을 마침내 빠져 나온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연수원에 들어간 뒤 평택안성지사로 발령을 받아 현재 가입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많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매일 배움을 얻고 적응해 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며 움츠러드는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핸디캡을 기회로 삼아 국민연금공단에 합격한 지금의 나는 ‘허리는 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내일의 나를 굳건히 응원한다.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따뜻한 봄은 반드시 온다고, 우린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 다가오는 불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한국전력공사 | 백○○



안녕하십니까,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전자제어부 ICT 직렬 신입사원 백○○입니다.

저는 장애인 전형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약 4개월 차가 되었고, ICT 직렬 신입으로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사용한 지도 이제 약 3개월 차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메일 하나, 기안문 결재 하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확신도 없고 고민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결재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도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처럼,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갖고 있던 생각도 '어색하다'였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만큼 전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했지만, 정작 이러한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가 사용하는 전자기기까지 전달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던 제가 한전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한전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인턴 경험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상태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스펙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남들이 다 준비하는 스펙보다는 확실한 인턴 경험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T와 금융 모두에 관심이 있던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공기업을 찾아 보았고, 한국산업은행 인턴에 합격해 소비자보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며 저는 공기업의 특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소하지만 내가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 입사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인턴 기간 동안 다른 인턴들에게 정보를 받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NCS는 처음이라 적응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또한 당시 서류 작성 경험이 현저히 부족했기에 한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도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낮은 서류,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영역, 오래 걸리는 준비 기간까지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신이 지쳐 갔고, 결국 초반에 지원했던 기업에서는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몰랐고, 그렇기에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학번이었기에 교류할 수 있는 선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해결책은 서류와 필기를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연습’이라 생각하며 기존 분량의 2~3배만큼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취업 지원 수업에서 들었던 조언 중 가장 자주 나온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는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확실한 해결책이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별 방법이 없었기에 그대로 실행했고, 놀랍게도 미약하나마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7번째 전형에서 처음으로 서류를 통과한 것입니다. 10번째쯤에는 공기업만 지원했기에 질문이 겹친다고 느껴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서류의 질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서류에 집중하다 보니 필기는 당연히 탈락했지만, 비로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는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첫 필기 시험 합격 이후 NCS 준비에도 같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NCS는 ‘많이 풀어봐야 는다’는 인식이 강했기에 서류 준비 때처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과정이었지

만 봉투 모의고사를 전부 풀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연습하고자 어느 공기업에 지원하여 필기를 치렀는데,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저는 다른 필기 대비는 복습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준비에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지원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필기를 소홀히 한 탓에 처참하게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면접. 흔히 "면접은 자신감! 면접은 기세!"라고 말씀하시는데, 90%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접을 다니며 말을 잘하는 분들도, 지식이 많은 분들도 봤습니다. 특히 토론 면접에서 이런 점을 가진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결국 자신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든 PT든, 일반 면접이든, 대화의 주제는 면접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지원한 회사의 1년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 자주 읽었습니다.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인턴 시절에 전수받은 방법 이었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은 거의 무조건 질문이나 토론 주제로 등장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익숙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자신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기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을 나열해 보았는데, 작성 하면서 걸어온 길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류에서는 무작정 도전해 보는 용기를, 필기에서는 꼼꼼히 임하는 성실함을, 면접에서는 앞선 두 과정을 복습하며 시련에 맞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대한민국 전력의 근간을 책임지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저는 연고지와 먼 곳에서 일하지만 보람찬 업무를 맡아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사무 업무와 ICT 직렬 특성에 맞는 장비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업무입니다. 변전소 내부의 거대한 설비 속에서 컴퓨터를 연결하여 DB 작업을 하거나, 협력사와 함께 직접 설비를 점검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설비와 환경에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흥미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설비가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전력공사 ICT 직렬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겠지만 곧 저처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 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공기업이며, 국가의 근간을 떠받드는 거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일해보고 싶은 분들께 입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둘째, 취업 과정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험을 '준비'라고 여기고 지원해 보십시오. 지원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며, 경험이 쌓이면 실력과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의지를 갖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샌가 익숙해져 합격을 앞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기를 읽고 한국전력공사로의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 나만의 자랑스러운 경험

국민연금공단 | 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연금공단 일반직 6급 취업에 성공한 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우리는 모두 예기치 않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8년 8월 금호동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전복 교통사고로 2차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당시 자립 보행이 불가능했고 인지능력 및 지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함께 같은 병실을 이용했던 보호자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퇴원하며 ‘나도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찾았고 22살이 되던 2010년 4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 입력과 같은 단순보조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일을 하면서 ‘나도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입사에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일반직 6급 장애인 구분 모집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기를 턱걸이로 합격했기에 ‘면접 준비에

매진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이란 나를 면접관에게 소개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나에 대해 숨김 없이 보여주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만의 특별한 경험과 장점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면접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감사한 마음에 지난 10년간 2천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이타심을 배웠고 얼마 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청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은 것이 저의 자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해 봉사해 나갈 수 있는 인재(人材)가 되겠습니다.”

저는 2022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일반직 6급 장애인 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2차례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자립 보행이 불가능했지만 수년의 재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낼 수 있었고 2차례 뇌수술 후유증으로 암기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지만 중요한 일정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차이점이기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가는 의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 능력이 특출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뇌수술 후유증으로 단기암기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경험해 보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소 느리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배려로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해 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 현재 행정부서에서 4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우수 입사 수기로 선정돼 매우 기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V

## 지역인재 채용



- 1 전북 청년, 마음 속 별(STAR)을 품다
- 2 Why not? 스펙이 아니라 방향이다
- 3 햄버거보다 먼저 배운 자연, 나를 닮은 풍경
- 4 지방대학 유아교육과, 공공기관 전산직으로 꿈을 이루다
- 5 불안한 시기, '지역인재'로 나를 증명하다
- 6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YES'라고 말하기까지

## 전북 청년, 마음 속 별(STAR)을 품다!

국민연금공단 | 유○○



### 🔍 1 공공기관 오픈캠퍼스에서 입사 전략(Strategy)을 세우다

공공기관 입사라는 막대한 꿈을 품었던 2020년 1월, 대학 교내 게시판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오픈캠퍼스를 실시한다는 안내를 보고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픈캠퍼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터라 경쟁 없이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선발했고, 덕분에 오픈캠퍼스 2기생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캠퍼스에서 공단의 업무와 비전, 인재상 및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노후준비 서비스'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준비 서비스'란 노후준비에 필요한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로, 재무적 관심과 정보 전달에 자신 있던 제게 딱 맞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공단의 입사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목표로 삼아 공단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서류·필기·면접 전형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다음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 ② 인턴 생활을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Training)을 경험하다

오픈캠퍼스 참여 직후 공단 업무를 파악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인턴 경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단 정규 인턴 선발은 이미 마감되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혹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인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곳 모두 지원한 결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통하여 방학 동안에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4주간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방 고객 안내, 우편 및 서류 전달·발송 등 업무를 자처하며 업무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지사 내 직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단 내부 문화나 분위기를 몸소 체감했습니다. 특히 지사 내 노후준비 전문강사·상담사와 면담 후 교육·상담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며 업무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한편,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라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 ③ 모교 취업설명회 등에서 나의 꿈을 정조준(Aim)하다

인턴 생활을 마친 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방향성 정립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모교에서 주최하는 취업설명회 중 공단 재직자가 참여하는 취업설명회에 최대한 참여하는 등 필요 정보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도(都)내 취업박람회 등을 찾아다니며 공단 선배의 입사 꿀팁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얻을수록 입사 이후의 방향성도 잡혀 갔습니다. 기존에 꿈꾸던 노후준비 서비스 업무에 대한 확신이 두터워졌고, 특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저의 발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확신을 통하여 공단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되겠다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제 목표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 ④ 입사 후, 마음속 별을 항상 되뇌이다(Remind)

2021년,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단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입사 후 첫해는 ‘연금지급부’로 배치돼 노령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지만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되는 꿈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노후준비 서비스 업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공단 본부의 ‘노후준비지원실’로 전입해 2년간 사업의 성과 평가, 노후준비 강사·상담사 선발, 사내 관련 자격증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및 보조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전세종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의 노후준비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매 순간 성취와 보람 속에서 왕성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준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한 감사함 역시 잊지 않았고 더 많은 지방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都)내·외를 막론하고 채용설명회, 기업박람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⑤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 청년들의 별(STAR)이 되길 바라며...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고용 안정성만을 생각하던 저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 계기이자, ‘노후준비 전문강사’라는 꿈을 꾸게 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방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이 제도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입사 정원 중 지역인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그와 함께 제도 홍보와 교육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앞으로도 지방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는 별(STAR)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Why not? 스펙이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노○○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나는 한때 “지방대 나오면 편의점 알바도 취업이라고 한다.”, “지방대 나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냐?”는 등의 조롱 섞인 말들을 들어야 했다.

처음엔 이러한 조롱 섞인 말들도 당연하다 싶었다. 학창 시절(중·고등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에 노력하지 않았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문득 100세 시대 이제 20살... 나의 남은 80년 인생이 이런 이야기만 들으며 살기에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다.

우연히 성적에 맞춰 선택한 정보보호 전공이 나의 적성과 놀랍도록 잘 맞았고, 그때부터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큼 두 배로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성적 장학금도 받으며 자신감이 붙었고, 취업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수도권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서 지방대 출신은 늘 ‘한 발 뒤’에서 출발하는 느낌이었다. 서류 탈락이 반복되던 시절, ‘역시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하는 회의감이 밀려왔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던 중 한 홍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취업박람회 및 특강’이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많은 취업박람회와 특강에 참석하였고, 이때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라인드 기반 지역인재 전형은 학연·지연·혈연, 대학 이름 없이 오로지 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첫 기회였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작아졌던 나 자신을 다시 세워 준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그 이후부터였다.

KISA에 입사 후 나는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국내·외 보안 인재 양성 사업을 기획·운영하면서, KISA가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몸소 느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 인프라 보안 점검 현장에도 참여했다. 보안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실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현재 나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박사과정을 병행하며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표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이버 보안 생태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제는 나처럼 지역에서 출발한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나주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진로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지방대라서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어도,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지역이 결코 한계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항상 말한다. 멘토링을 하며 학생들이 “선배님처럼 저도 KISA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면,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듯해 마음이 벅차오른다. 내가 받은 기회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다.

돌이켜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단순히 취업의 문을 연 제도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제도였다. 만약 그 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지방대 출신이라 불리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국가 사이버 보안을 지키는 사람’으로 소개된다. 그 변화는 한 제도가 만들어 낸 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명확하다. 나처럼 지역에서 출발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들의 가능성을 더 넓게 품을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또 선배로서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지역에서 자란 한 청년이 공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했듯, 누군가의 노력 또한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단순한 균형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장시키는 '성장의 사다리'이다.

나의 이야기가, 그 사다리를 오르려는 또 다른 청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 햄버거보다 먼저 배운 자연, 나를 닮은 풍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이○○



### 🔍 햄버거보다 먼저 배운 자연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만 내가 자란 전라북도 진안은 패스트푸드점 하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나와 고향 친구들에게 자연은 곧 놀이터였고, 생활의 전부였다. 도시 친구들이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친구들과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물장구를 쳤고, 가을이면 산에서 밤송이를 주웠다. 봄이면 온 마을을 누비며 산나물을 캐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자연은 매일의 배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어린 시절에는 그 소중함을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지냈다.

진안은 자연이 풍부한 고장이었지만, 교육과 진로의 기회는 많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자연을 통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자연과 함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는 분명했다. 그런 마음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산림과 관련된 학문으로 이끌었다.

산림조경학대에 진학한 것은 거창한 목표 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해 온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이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대학 시절 우연히 참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학교 체험학습으로 방문해서 경험했던 국립나주숲체원에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히 숲을 걷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의 향기를 맡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듯한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위로는 나에게 전에 없던 감동을 안겨 주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경험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 주었다.



### 숲이 전해 준 마음

그 마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산림과 조경 중 세부 전공을 고민하던 시점, 나는 자연스럽게 ‘산림’을 택하였고, 산림치유학 수업에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임했다. 내가 다닌 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취업 관련 정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교수님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이런 꾸준한 관심과 성실함이 쌓여, 대학 4학년에는 산림치유학 조교로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수업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참여자인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 사람들 앞에 서서 프로그램을 이끌던 순간은 떨림과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숲길을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서히 나만의 방식으로 참여자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 갔다.

그중에서도 한 후배의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누나가 없었으면 대학생활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별레가 많고 어두운 산이 싫어서 학과 생활이 재미없었는데, 누나와 함께 프로그램을 해 보니 행복했고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이 됐어요.”

그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고, 나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마음 깊이 치유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했다. 산림치유는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일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산림치유지도사 1급 자격을 목표로 삼았고, 더욱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 배움으로 이어진 치유의 길

대학원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연구 설계부터 자료 수집, 통계 분석까지 모든 과정이 나에게서는 낯선 도전이었다. 통계 프로그램 앞에 앉아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오류를 잡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막막함에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다. 논문 초안을 들고 교수님 앞에 썼을 때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고되고 힘들면서도 참 즐거웠다. 연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자연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숲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나 자신의 내면도 점차 단단해졌다.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그만큼 연구 환경에 제약이 있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길러졌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쉽지 않았기에 더 의미 있었고, 즐거웠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지원하는 날이 찾아왔다. 서류를 준비하며 지금껏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내 안에 쌓여 있던 경험과 진심을 담아 정성껏 정리했다. 내가 선택한 우대사항은 ‘지역인재’였다.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채용 시장 속에서, 이 제도는 지방 출신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문이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배움이 불리함이 아니라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나의 전공과 경험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

면접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스터디를 하며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중 한 스터디원이 던졌던 질문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당신에게 산림복지란 무엇인가요?”

처음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가 내린 정의는 분명했다. 내가 생각하는 산림복지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찾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동안 꿈꾸고 애써 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걸까. 운이 좋게도 단 한 번의 기회로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은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온전히 실감한 순간이었다.

지금 나는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첫발을 내딛은 신입 직원이다. 숲길을 함께 걸으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치유의 방법을 진행하며 배움을 얻는 매 순간이 새롭고 즐겁다.

누군가가 처음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오더니,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라고 말할 때면 그 한마디가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숲이 주는 회복의 힘을 몸소 느끼며, 나 역시 그 치유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단단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이제는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발견한다. 처음 숲에서 위로받았던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고, 그 감정을 잊지 않으려 오늘도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바라본다.

입사 후 교육과정에서 만난 여러 지역인재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자 다른 지역의 대학을 나왔지만, 지역에서 배운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우리는 지역에서의 경험이 단점이 아니라,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의 회복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 지금은 막 첫걸음을 뗀 팀원이지만, 언젠가는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리더로 성장해 산림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길의 시작에는 언제나 자연이 있었고, 그 시작점은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햄버거보다 먼저 자연을 배운 나의 어린 시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 지방대학 유아교육과, 공공기관 전산직으로 꿈을 이룬다

한국마사회 | 김○○



### 1. 공부는 유전인가?

나는 공부라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만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며,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내 학창시절은 처참했다.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수학 100점 만점에 18점. 내 인생에서 받은 최악의 성적표였다. 학창시절 공부엔 재능도 없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던 것 같다. 고등학교는 내신 5등급으로 졸업했고, 수능은 언어영역 7등급을 포함하여 평균 4.5등급을 받았다.

### 2. 대학교 입학, 그리고 안일했던 삶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나는 결국 재수를 결심했고, 학창시절 공부를 몰랐던 내가 재수를 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었다. 당연히 수능 점수는 최악이었고, 삼수는 할 수 없었기에 수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간 대학은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대학에 입학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내가 선택한 학과는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학과가 아닌 입결에 맞추어 겨우 합격할 수 있었던 유아교육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라는 학과 특성상 적당한 학점으로 졸업만 성공하면 교원자격증이 나오고 안정적인 공립교사도 될 수 있는 미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 중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생활비를 탕진하며 4년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결국 17명 중 16등이라는 초라한 학점을 지닌 채 졸업하게 되었다.

### 3. 임용고시도, 취업도 실패

졸업을 1년 남겨둔 2020년도 초,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임용고시를 치를 준비를 시작했으나, 수능도 7등급 받던 학생이 임용고시는 잘 볼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에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로 한다.

그러나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늘 열려 있던 유치원 채용 시장도 가뭄이 붙었다. 취업깡패 학과를 나왔는데도 아무 것도 못한 채 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 4.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

임용고시 포기과 취업 실패. 좌절만 하던 내게도 예전부터 즐겨왔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게임과 컴퓨터였다. 임용고시 공부 중에도 지인이 컴퓨터 게임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면 밤새서 만들어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개발자 붐이 일어났었고, 국가에서도 그런 개발자 양성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개최해 주었다. 나는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개발자 양성 부트캠프에 참여하였고 6개월간 코딩·소프트웨어 운영 등을 배우며 개발자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6개월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었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것이 내 적성과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내 적성을 찾게 되었다. 개발자로서 직장을 갖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 5. 쉽지 않은 도전, 그리고 포기, 좌절

- **(실패)** 개발자 도전은 코딩테스트 등 실무수행능력을 테스트하는 기관도 있어서 입사 난이도가 매우 높고, 다른 기업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실무자급 인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출신의 부트캠프 6개월만의 능력만 가진 내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 **(포기)** 취업 시장에서 다른 전공생들은 4년 이상 공부해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지식과 스펙을 쌓아 냈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내가 비수도권대학 비전공자로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워서 기본기도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결국 개발자로서의 입사를 포기하게 되고, 1년 동안 또 한 번의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 **(좌절)** 결국 꿈을 포기한 채 도전했던 임용고시에서는 당연하게도 떨어졌고 계속해서 좌절하였다. 나는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된다. 이 개발자의 꿈을 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임용고시를 붙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그렇다고 개발자로 소위 '네카라쿠베당토'로 일컫는 기업들,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기업들조차 나는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했기 때문에 결국 좌절에 빠진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6. 공공기관, 내게 남은 마지막 기회

좌절감에 빠지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우연히 모교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전산 직군에 근무한다면 개발자처럼 근무할 수도 있고 입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가벼운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그 조언대로 공공기관 전산직군 입사를 찾아보았는데 정말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공공기관 취직은 2가지의 장점이 있었다.

- **(BLIND)** 나의 배경이나 과거 등은 모르고 내가 가진 개발 실력이나, 필기점수·면접 점수만으로 나를 평가해 준다는 것. 나같이 아예 전산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전산 직렬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다른 사기업에 비해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인재)** 나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에, 수도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좋은 학력을 지닌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으나, 비수도권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 채용 제도 덕분에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 7. 한국마사회 전산직 입사까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집 앞 독서실 6개월 이용권과 58만원이 전부였다.

나는 공공기관 전산직 입사 도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정보 확인이었다. ‘잡알리오’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도 참석해서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분위기부터 살폈다. 전산직은 매년 1~2명 정도의 소규모 채용을 하다 보니 두려움이 앞섰지만, 무조건 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공공기관 채용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면접시험이다.

- **(서류전형)** 1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위 ‘스펙’을 만들어 서류 합격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서류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했으며, 빨리 끝내 놓고 다른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 돈도 없고, 독서실 이용권도 끝나가니, 솔직히 잠이 안 왔다. 공부법도 몰라서 정보처리기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OPIC 그저 무식하게 온라인 문제은행으로 통째로 외웠다.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자며, 3개월만에 스펙은 완성되었다. 나도 놀랐다.

- 자개소개서에 쓸 직무 관련 대외활동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부트캠프, 자격증 준비 중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담아내니 지원했던 공공기관 서류전형 합격률은 100%였다.

- **(필기시험)** 공공기관 필기시험은 크게 NCS 시험과 전공필기 시험 이렇게 두 과목을 본다. NCS는 언어능력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수능 언어점수는 7등급으로 매우 취약했기에 전공시험에 올인하는 전략을 세웠다. 전공시험은 어차피 직무면접에서도 연장되니까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닌, 내 인생 최초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해 보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전공서적 1권만 샀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와 기출 문제들을 출력해서 그냥 무한 반복의 연속이었다.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공시험은 안정적으로 80점대를 받았다.
- **(면접시험)** 나는 1차 직무면접이 가장 두려웠다. 전공 내용을 모르면 바로 들통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말하기부터 준비했다. 대신 아는 것은 완벽하게 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필기시험 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심화내용에 주력했고, 노력에 대한 결과인지, 내가 아는 개념이 나와서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었다. 2차 인성면접에서는 기관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상 에피소드를 연결시켜 답변함으로써 최종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

## 8. 마지막 취업준비생들에게...

저에게 '지역인재' 전형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히 경쟁률 측면에서 유리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겐 좀 달랐습니다. 수능 결과대로 살지 않고, 인생을 좀 더 개척해 볼 수 있는 그런 낭만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공부로 성취해 본 경험도 없고, 서울은 수학여행 에버랜드로 가 본 게 전부일 정도인 지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열정, 의지만 있다면 채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저는 순조로운 취준 생활만 한 것 같고, 운이 9할은 차지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무모한 도전을 결심하고도 하루에도 100만

번 포기하고 싶었고, 매일 밤 미래가 불안해서 고통스럽게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이 되면 밥 먹고 페이스대로 하다 보니 결국 결승선에 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ALL 100점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고, 취업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교 유아교육과 설립 이래로 최초로 공기업 전산직 합격한 사람!

## 불안한 시기, '지역인재'로 나를 증명하다

한국장학재단 | 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되던 시기에, 끝이 보이지 않던 채용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으로 첫발을 내딛은 입사자입니다.

2021년 하반기 한국장학재단 입사를 준비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겪어 온 어려움과 준비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글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도전하는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사 이유: 내 일의 의미를 찾다,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저는 대구 토박이로,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모두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고향인 대구에서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 제 미래를 위한 커리어를 만들고 싶었지만, 정작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공한 학과는 취업률이 매우 낮은 어문학과로, 전문성을 쌓기에는 훌륭한 전공이었지만 그 전문성을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찍이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이라는 학업을 선택하였지만, 이후 박사과정에 대한 경제

적 부담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국 20대 중후반이 되던 나이에 그간 준비했던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미래를 고민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해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제 꿈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고 나오던 중 게시판에 걸린 ‘대구 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홍보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균형과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이 더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이전 공공기관을 찾아보던 중 가장 눈에 띄는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 제가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 부담 없이 원하던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강의 외 시간에는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한국장학재단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의미 있는 곳이었기에 한국장학재단 행정직 입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 준비: 남들보다 늦었지만, 더 멀리 갔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이 말은 제가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백 번 되새겼던 문구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으로 주변 친구 및 선·후배들과 비교했을 때 취업 준비가 최소 2년은 더 늦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2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세운 뒤, 서류부터 면접까지 뒤쳐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준비된 지원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업 분석과 입사 선배님들의 다양한 취업 후기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지역인재 채용을 준비하였으며, 채용 전형(서류-필기-면접)을 준비하면서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필수 전략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1. 서류전형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TOEIC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등 흔히 말하는 취업에 필요한 기본 자격증은 3~5개월을 목표로 두고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가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은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 전형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직무교육 이수입니다. 저는 어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행정직과 관련된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교육과는 크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직업교육을 최소 5개 이상 이수하여 공공기관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지원자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 필기전형

필기전형의 경우 비전공자인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도전으로, 채용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전형입니다. 저는 NCS와 통합전공인 경영학, 경제학, 「민법」, 「상법」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필기 준비 기간은 최소 6개월~1년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NCS의 경우 매일 유형별로 5~10개씩 꾸준한 문제 학습을 통해 풀이 실력을 높이고, 본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와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전공을 준비한다면 전공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론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일 전공에 비해 문제 난이도는 확실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학습량에 겁먹지 말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운다면 통합전공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면접전형

한국장학재단은 1차 PT 발표 및 토론 면접과 2차 최종 면접으로 이뤄졌습니다. 총 2차례 면접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큰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의 경우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면접 스터디를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본인이 모르는 행동이나 말투를 제3자의 시선으로 점검할 수 있고, 돌발상황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추천합니다.

또한 1차 면접의 경우 기관의 사업 또는 최신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기관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공지 내용을 꼼꼼히 조사하여, 면접 질문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면접은 최종 인성 면접으로, 서류 전형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30초~1분 내외 답변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등을 설정하여 면접이 끝난 후에도 위원님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핵심 가치가 '공감/신뢰'라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응대하는 '#번 지원자'로 저를 표현하였습니다.

2차 최종 면접 시간은 보통 5~10분 내외로, 자칫 방심하면 면접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키워드와 콘셉트 등을 만든다면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짧은 순간에도 본인을 어필하고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입사 후 현재: 일이 삶이 된 순간

저는 이제 한국장학재단 입사 5년 차에 접어든 윤 대리입니다. 작년부터 기관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며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대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대학원 진학과 취업 등으로 어느 순간부터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공헌 사업을 맡게 되었고,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2021년 하반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 고향인 대구에서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 마무리: 그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한 준비였다

취업 준비를 시작할 무렵 코로나19와 함께 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처럼 항상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나의 기회는 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YES’라고 말하기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



### 1. 지방대에서 시작한 첫 발걸음

저는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업과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지만, 졸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 인턴이나 화려한 스펙을 쌓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게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년인턴 채용이었습니다. 저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을 받아 최종 선발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꾸준히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2.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만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의 인턴 경험은 단순한 실무를 넘어, 제 커리어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제도를 통해 입사하면서, 이 제도가 단순

한 가점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본 채용제도를 자세히 분석하며 NCS와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방식, 지역인재 가점 부여 구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입사를 최종 목표로 정하고, 지원 자격과 직무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 얻은 기회를 단순한 ‘가점’으로 여기지 않고, 제 배경과 경험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다짐으로 입사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 3. 입사를 향한 준비의 여정

#### 1. 서류전형

서류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히 그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토익,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 등 주요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언론 산업 진흥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 2. 필기전형

재단의 필기전형은 매년 조금씩 유형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자세히 분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NCS와 경영학 전공 공부를 병행하며 풀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영학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복습을 통해 꼼꼼히 암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과목(언론, 광고 등)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요 이론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사 이슈를 30장 분량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습했습니다.

논술 전형 대비를 위해 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방송』을 읽으며 예상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실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글의 구조를 잡고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 3. 면접전형

면접은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 진심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왜 꼭 한국언론진흥재단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제 경험과 재단의 방향을 연결해 보며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줄줄이 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면접 연습을 하면서도 늘 진심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 4. 합격의 문이 열린 순간

긴장감 속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그날, 4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최종 합격’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막연히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은 결국 스스로 만든 마음의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접한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기뻐해 주었고, 특히 인턴 시절 함께 근무했던 재단 선배님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채용 과정의 끝이 아니라 목표하던 기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지금도 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5. 전하고 싶은 말

‘지방대생이라 어렵지 않을까?’, ‘내가 가진 조건으로 가능할까?’ 처음엔 여러 생각들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결코 한계를 의미하지 않았고, 제게 부족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멀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졌던 준비 과정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shapes: a large, light blu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hatched circle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blue C-shaped curv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some with rounded end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have a white background with a fine, diagonal hatched pattern.

2025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V

## 청년인턴 채용



- 1 HIRA 덕후의 옹골찬 인턴십 활용기
- 2 현장에서 배운 진심 공공의 길을 열다
- 3 조급함 대신 단단함으로, 청년인턴으로 만들어 낸 나의 숲
- 4 역대 최대 경쟁률을 뚫은 최연소 입사자가 되기까지의 6개월
- 5 오늘의 나는 6년 전의 내가 꾸었던 꿈
- 6 3,500km를 날아 다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다

## HIRA 덕후의 옹골찬 인턴십 활용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박○○



### 〈Chapter 1: 헤어질 결심〉 필드를 떠나, 간호사계 신의 직장에 입문

저는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내과계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5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필드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중환자 재활 절차를 만드는 업무를 하면서 주도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곳에 들어가기엔 정보와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Chapter 2: 조직 경험〉 유레카! 인턴을 겪으니, 정규직이 눈앞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턴의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정규직과 인턴 간 채용 직종을 연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표인 심사직에 지원했고, 심사전략실 분석심사부에 배치받았습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며 몸소 느꼈던 첫 번째 혜택은 회사 내부 업무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가 고유 업무이지만 국민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서 자연스럽게 ESG 행사와 지역 상생 행사도 참여하고, 내부 공고를 읽으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제가 소속된 부서에 관심을 가지면 현업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사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 내부 직원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기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도와드릴 것을 나서서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서 업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니 전문분과심의위원회와 각 지역에 있는 본부회의에 참석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간 짧은 인턴 동안 다른 동기들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하여 이 업무를 맡는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어떤 능력을 활용해야 할지 상상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경력이 있었지만, 의학적 지식보다 의료 현장을 반영하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회의 및 외부 위원들과 소통하는 업무가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심사 특성상 SAS 프로그램을 활용할 일이 많았고, 업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어깨너머로 SQL문을 공부했었습니다. 마침 정규직 면접 심사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SAS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이 비싸서 연습하지 못한 점을 말하며, SAS에서 사용하는 SQL문에 대해 공부하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부서 선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필기전형에는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을 잘 숙지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제가 겪어보지 못한 전문 분야의 업무들도 있어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 보고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표시해 놓고 부서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해당 업무를 해보신 분도 계셨고,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까지 물어봐 주시며 제가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시험에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혜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직무·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직무교육입니다. 정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이버연수원에서 다양한 직무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PT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질문에 인턴 경험이 없는 면접자와 차별화하여 답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교육입니다. 공부만 하는 소위 '독서실 인턴'이 아닌, 온전한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AI 기반 업무 자동화 등 인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력을 학습했습니다.

셋째, 취업 교육입니다. 전문가 취업 특강과 신규직원 조언이었는데,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하기 위한 선배들의 여정을 들으며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Chapter 3: 경쟁 또는 시너지> 동기가 되고자 모인 동지들

제가 인턴이 되자마자 한 일은 동료 인턴들과 스터디를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 관심 있고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인턴이 되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꾸리는 일은 쉬웠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인턴들끼리 공부 의지가 많은 친구들로 스터디를 꾸려 입사하자마자 자격증 및 필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인턴을 준비하며 자격증을 어느 정도 취득했지만, 추가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준비하며 다른 인턴 친구들에게 팁이나 자료들을 얻었고, 저도 바로 직전에 취득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정리자료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서로 Win-Win할 수 있고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긴장된 환경 속에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검정능력 1급, 실용글쓰기 준2급, ADSP, SQLD, 사회조사분석사 2급 등 우대가점이 적용되는 총 6개 자격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들끼리 일주일에 3번 이상 모여 NCS 공부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류 발표가 나고 10일 내외로 필기시험을 보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하자마자 바로 자격증은 물론 NCS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교육장은 신청하면 대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장소의 불편함 없이 어디서든 모여 같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퇴사하던 날, 퇴사 1시간 전에 발표가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예뻐해 주신 직원분들께 떨어져도 붙어도 소식은 알려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들에 회사 생활에 활력이 되고 힘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같은 부서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성장 중입니다!

## 현장에서 배운 진심 공공의 길을 열다

한국마사회 | 남○○



### 🔍 도전의 출발선, '나를 말로 표현하기까지'

한국마사회와의 인연은 '입사'가 아닌 '청년인턴'으로 시작됐다.

그때의 나는 단순히 경력을 쌓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몸소 경험해 보고 싶었다. 책과 뉴스로만 보던 공공의 역할을 직접 체감하고, 그 속에서 나의 진로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청년인턴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을 찾던 중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말 산업 발전 비전을 접했다. 단순히 경마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말 산업을 매개로 지역경제, 복지, 스포츠를 잇는 공공 플랫폼이라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의 목표는 뚜렷해졌다.

하지만 막연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한국마사회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을 단순한 스펙 요약이 아닌 나의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글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나의 장점을 이 기관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였다. LH, HF, 캡코 등 다양한 청년인턴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건, ‘공공의 메시지를 신뢰감 있게 전달하는 힘’이야말로 공기업이 가진 가치의 핵심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현장 소통 능력과 아이디어를 나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았다.

## Q 청년인턴에서 얻은 통찰, 그리고 나의 성장

인턴 생활 동안 나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배우는 실무자’였다.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국민임대 접수 및 입주자 관리 지원을 하며 직접 현장 직원들과 협력했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입주자의 피드백을 정리하는 업무도 맡았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안내문을 수정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 다듬기로 생각했지만, 담당 부서와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문장은 단 하나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

“보다 쉽고, 명확하게,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언어로 전달하자.”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글을 쓸 때마다 ‘수신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습관이 생겼다. 이 습관은 훗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다. 나의 글에는 ‘조직을 배운 사람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면접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홍보 문구 하나에도 기관의 가치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면접장 분위기를 바꾸었다. 면접관의 고개가 끄덕이는 순간, 나는 청년인턴 경험이 단순한 경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실감했다.

## Q 청년인턴 경험이 만든 '실무형 인재'의 자신감

청년인턴 경험은 단순히 '이해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배운 업무의 흐름, 내부 협업 방식, 보고 체계를 실제 입사 후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조직을 보는 시각'이었다.

청년인턴 이전의 나는 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직접 근무하며 느낀 점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진심과 협력의 힘이라는 것이었다. 현장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과 노력, 그들의 세심한 손길이 기관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나는 늘 그 마음으로 일하고자 한다.

## Q 같은 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스펙의 경쟁'보다 '시선의 훈련'에 가깝다. 모든 지원자가 비슷한 자격증과 어학점수를 갖고 있는 시대에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공공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나의 경험에서 전하고 싶은 조언은 세 가지다.

**첫째, 기관의 본질을 파악하라.**

한국마사회는 단순히 경마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말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복지를 확산하며, 문화를 창출한다.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경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둘째, 작은 경험도 연결하라.**

청년인턴, 아르바이트, 봉사, 글쓰기, 팀 프로젝트 등 무엇이든 공공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나 역시 청년인턴 당시 직원분들의 업무 수행 태도를 관찰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소한 경험이 면접에서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이다.

셋째, 꾸준함은 전략이다.

취업 준비는 마라톤과 같다. 하루의 피로보다 중요한 건 방향의 일관성이다. 나는 매일 1시간씩이라도 공공기관 관련 보도자료를 읽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 작은 루틴이 단단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 🔍 '공공의 언어'를 배우는 여정은 계속된다

청년인턴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은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 속에서 나는 '현장에서 배운 진심'을 잊지 않으려 한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지만, 진실이다. 그리고 그 준비란 단순히 점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그 여정을 진심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다.

## 조급함 대신 단단함으로, 청년인턴으로 만들어 낸 나의 숲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정○○



식물의 성장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씨앗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가치를 뽐어 숲을 이루듯, 나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조경학과에서 수목원을 간다고?” 졸업을 앞두고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조경 설계 사무소나 시공 회사로 향했다. 수목원은 산림자원학(임학)과 원예학 전공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경 설계를 배우며 화려한 도면보다 식물의 생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나는 현장 실무를 접할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 식물의 생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하는 현실. 예를 들어 고산식물인 주목이 대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대구에 조경수로 심겨 있는 것을 보며 ‘이 식물이 왜 여기에 심겨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식물의 가치를 다루는 곳이자 식물이 주인공인 수목원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족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도 ‘조경학 전공자가 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공고를 보게 되었다. 망설임 끝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렇게 시작된 10개월의 여정 속에서 식물의 생태적인 이해뿐 아니라 공간의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조경적 감각이 어떻게 수목원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 또한 개인프로젝트로 ‘나비정원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관람객이 자생식물과 화분매개곤충 그리고 자연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을 겪으며 수목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함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으로 입사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교육과정을 마무리할 즈음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된 000 주임님은 내게 이렇게 조언하셨다. “교육생으로 보는 한수정과 직원으로 보는 한수정은 분명 다를 거예요. 청년인턴으로 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청년인턴’ 제도와 ‘한수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청년인턴 서류를 준비를 위해 한수정의 주요 사업과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는지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목표가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그저 막연히 ‘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수목원의 전문성을 배우고 현장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겠다’라는 꿈을 키웠다. 000 주임님은 3년간 근무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토대로 청년인턴의 서류부터 AI·다대다 면접 과정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셨다. 덕분에 이른바 금턴<sup>1)</sup>으로 불릴 만큼 불기 어려운 청년인턴을 한 번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6개월 간의 한수정 청년인턴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결제와 결재의 차이조차 몰랐고, 보고의 절차나 업무 프로세스, 행정문서 작성 등 모든 게 새로운 세계였다.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고,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긴장의 반복이었다. 사원증을 처음 받은 날의 기쁨이 생생하다. 그저 하나의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나에게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소속감이자 자부심이었다. 6개월 동안 그 사원증을 소중히 목에 걸고 다녔다. 내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바짝 긴장한 채 메모장에 적어 놓은 인사 문구를 따라 읽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대신 받은 전화임에도 메모를 남기지 않거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한수정에서의 첫 번째 업무는 ‘전시원 리모델링’으로 백두대간 고산·아고산지대 식물의 현지외 보전원<sup>2)</sup>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경 설계에서 배운 도면 작업 능력이 도움이

1) 인턴 기회가 금보다 귀하다는 뜻으로,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인턴으로 선발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비유  
2) 생물종 보전 전략으로 본래의 자생지가 아닌 곳에서 보존하는 활동

되었지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생육 환경, 계절적 변화, 대·내외 홍보, 관람객 동선과 안전까지 고려해야 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전시원을 조성하고, 그 결과와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두 번째 업무는 ‘공공정원 조성 및 식물관리 컨설팅’으로 인구 소멸위험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 조성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매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성 후 내가 작성한 보도자료가 인터넷 기사로 게재되었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화면 속의 사진을 보며, 모두 우리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다.

마지막 업무는 ‘반려식물 프로젝트’로 국·공·사립 수목원, 관람객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수목원 대표식물 종자를 나눔하는 행사이다. 나는 종자 채집 및 활력 검사, 개화 사진 촬영, 재배 방법과 식물 설명이 담긴 카드 제작과 포장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담당했다. 3일간 진행된 나눔 행사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9.4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준비한 나눔이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증거같았다.

인턴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실무적이었다. 현장에서는 흙을 만지고, 사무실에서는 문서를 작성하며 실무와 행정업무를 배웠다. 이 모든 경험이 단단한 나를 만들었다. 단순히 일을 배운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의미를 몸으로 익혔다. 행정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고 보고서 작성, 결재 프로세스,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느꼈고, 나의 업무가 기관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웠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내선 전화를 받기 시작할 때, 업무보고회를 맞이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만큼 긴장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담아 또박또박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 근무 날, 내가 ‘우수인턴’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마치 수목원이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았다.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그동안의 인턴 생활이 꿈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했다.

이 경험은 이후의 취업 준비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NCS·전공 필기시험을 응시할 때도 문제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왜 그런 역량을 중요시하는지 나는 이미 청년인턴 경험으로 알고 있었

다. 한수정 정규직 면접 때 “인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공공의 일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문장이 내 진심이자, 합격의 열쇠였던 것 같다.

물론 정규직 합격까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서류 탈락, 두 번째도 서류 탈락, 세 번째는 필기 탈락. 한국조경학회 우수 졸업생상,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우수교육생으로 산림청장 표창, 한수정 우수인턴상을 받고도 세 번의 불합격을 통보받았을 때, 대학 동기들은 입사 3년 차가 되어 이직 준비나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조정 설계를 시작할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준 것은 청년인턴 동기들과 한수정 직원분들의 격려였다. 청년인턴을 통해 맺은 인연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이다. 네 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정규직에 합격한 순간, 모든 시간과 좌절의 순간이 내 성장의 비바람이자 밑거름이었음을 실감했다.

많은 사람이 “인턴은 그냥 경험 쌓는 자리 아니냐”라고 묻는다.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조급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준비의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바로 청년인턴이다”라고, 이를 내 경험으로 증명하고 싶다. 청년인턴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도면 속 식물만 바라보며 “이 식물이 왜 여기에 심겨야 할까?”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안다. 그 식물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수목원이라는 자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입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청년인턴이 아니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교육 강사로, 청년인턴들의 멘토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로 현장에 서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여전히 성장 중인 식물과 같다. 앞으로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목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성장하고 싶다. 씨앗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은 이제 숲을 이루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자라날, 또 하나의 시작이다.

## 역대 최대 경쟁률을 뚫은 최연소 입사자가 되기까지의 6개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남○○



### 1. 겨울의 문턱에서, 나를 증명한 첫걸음

2024년 연말, 저는 졸업을 두 달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품었고, 그 꿈을 위해 학부 재학 시절 내내 흔들림 없이 저만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휴학 없이 학점을 관리하며 자격증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한편, 다양한 대외활동 참여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교내외에서 총 다섯 개의 상을 수상하며 제 역량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는 마음으로 약 20곳의 기관에 청년인턴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합격 소식을 들은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합격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는 제가 걸어온 길을 증명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 2. [첫 번째 인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배운 공공의 언어와 사람의 온기

저의 첫 합격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자원통상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에너지 R&D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주어진

일에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업무 자료를 정리하며 데이터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경영실적보고서 참고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기관의 경영평가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R&D라는 분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R&D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하나가 산업을 바꾸고,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저는 점점 이 분야에 매료되었습니다. 자료의 흐름에서 기술의 방향을 읽고, 사람들의 노력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외에 저는 직원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동기들과 팀원분들은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저는 매일 점심 시간마다 실무 팁을 묻고 배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인턴 종료일, 팀원분들이 “정규직으로 꼭 다시 보자”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온기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 3. [두 번째 인턴] 한국연구재단에서 배운 전문성과 실전 감각

첫 인턴을 마친 후 곧바로 두 번째 인턴에 지원했습니다. 실무에서 배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업무에 도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부분 기관의 서류와 면접 전형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R&D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이번 인턴에서는 인문사회총괄팀으로 배정받아 PPT 보고서 제작, 실적 정리, 회의 자료 편집 업무를 맡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보고서 제출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주말 전까지 완성해 팀장님께 칭찬을 들어 뿌듯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4. 수많은 불합격과 흔들림 속에서도

인턴 업무와 정규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정식으로 직무를 부여 받아 업무에 임하고 싶다는 의지로 잠을 이겨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정규직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커트라인보다 한두 문제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고, 1차 면접 불합격 소식을 확인한 날에는 퇴근 후에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책상에 인턴 명찰을 올려 두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필기 합격을 위해 NCS와 전공 공부에 매달렸고, 주말마다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며 제 이야기를 더 진솔히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닌, 제가 걸어온 길을 담은 문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꿈꾸던 자리에 서다

2025년 7월 초, 한국연구재단 인턴 신분으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기차에서 전행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정규직 최종 합격 소식이 떴습니다.

합격 메일을 바라보면서 저는 입 밖으로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창밖에 여름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의 시간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몇십 개의 지원서, 수많은 불합격 통보, 책상 위에 올려둔 인턴 명찰을 바라보며 다잡았던 마음,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메일로 품어졌습니다. 두 번의 R&D 기관을 거쳐 종착지 또한 R&D 기관이라는 사실은 제가 걸어온 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잘 버텼다고.

입사 첫날, 저는 마침내 인턴 시절에 바라보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펼치며 과거 경영평가에서 정리했던 지표들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때 익혔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고,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

숙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차 안에서 받았던 합격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견뎌낸 모든 시간에 대한 위로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청년인턴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다고.

## 6. 청년인턴 제도가 나에게 남긴 것

청년인턴 제도는 제게 단순 일자리나 경력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의 행정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제 가능성을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첫 인턴 생활 전에는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낯선 도시와 고시원에서 견뎌낸 경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스무 개의 지원서 중 단 하나의 합격으로 시작된 여정은 결국 두 개의 R&D 기관을 거쳐 정규직 입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이 직선은 아니었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결과가 나온 뒤, 경쟁률이 역대 최대였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를 마주했을 때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능성보다 제 의지를 믿었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최대 경쟁률을 뚫은 최연소 입사자.” 이 말은 결과를 설명하는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도전과 포기의 순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고,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에서 출발해 공백기 없이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서기까지의 여정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의 업무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신뢰를 행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 오늘의 나는 6년 전의 내가 꾸었던 꿈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



최근 취업시장에는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가 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보유한 채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직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경험 없이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맞닥뜨린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신입사원들이 좌절하고 그중 일부는 상처를 안은 채 퇴사를 결정한다. 그들이 떠나는 만큼 기업들도 금전적·인력적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다음 채용에 영향을 끼친다.

요즘의 고용 시장은 이러한 피드백들로 점차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은 좌절하지 않을, 조금 더 노련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길 바라게 된다. 흐름이 그렇게 바뀌니 취업을 원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나 또한 그런 취업 준비생 중 하나였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벽에 부딪혔었다. 당시 나에게는 국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경험과 실험실을 다니면서 쌓은 지식 및 실험 경험, 학내 기업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4년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고하게 정한 다음 목표로 삼은 공공기관을 정하는 것까지는 쉬웠다. 그러나 그 문턱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다. 면접에 있어서는 무척 약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면접에서 직무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다른 면접자들과 차별화된 직무 경험이라 볼 수 없으니, 나를 뽑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면접관이 건넨 마지막 답변은 무척 충격이었고, 동시에 이러한 벽을 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라는 틀 안에서만 활동한 경험이 아닌, 실제 직무를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 입사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에 그와 가장 유사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체험형 인턴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의 나 자신을 떠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좌절이 하나의 인연으로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턴십 제도이다. 채용형 인턴과는 다르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직무 경험과 경력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기존에 쌓았던 경험과 경력은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서의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하기에 다소 모자랐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은 나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의 직무 탐색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므로 자격 요건상 합격 최저선을 충분히 넘길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면접까지 무사히 마친 나는 무사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턴이 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서 전공 지식으로나마 소와 돼지에 등급을 매기는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인턴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축산물의 등급 판정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축산물 이력제와 같은 유통 거래에도 관련이 있었으며, 농가와의 피드백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축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말 그대로 농장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직접 입사하여 품질평가사들과 함께 업무를 돕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 보았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턴인 나는 축산물 품질평가사의 사무 업무 보조와 축산물 이력제의 기본이 되는 도축단계의 DNA 시료 채취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의 품질평가사님들

의 교육 출장이나 농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견학해 볼 수 있었다.

작업장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새벽부터 시작되는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축산물 등급 판정과 같은 현장 업무와 등급 판정 결과를 전산 및 문서화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업무로 나뉜다. 등급 판정하는 축종도 소와 돼지뿐만 아니라 가금(닭, 오리, 계란)과 말, 꿀처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고, 그렇기에 농가나 업체에 교육하는 일도 맡고 있다. 전화 업무도 많아서 나는 품질평가사 업무 중 가장 쉽고 단순한 업무들을 나누어 받았을 뿐인데도 인턴을 수료했을 적에는 메모로 다이어리 하나를 빼곡하게 채울 수 있었다.

3개월이 무척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쁘고 충실하게 보낸 기억이 난다. 10℃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는 예냉실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사들과 함께하며 나는 이 직무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입사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다.

만약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일찍 입사했을 지도 모르겠다. 인턴을 수료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발생한 팬데믹 영향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입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 공백 기간이 두려웠던 나는 민간 기업으로 구직을 알아보게 되었다. 업무 감각을 잃고 싶지도 않았고 목표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체험형 인턴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이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했다. 나에게서는 현장과 사무 업무가 공존하는 직무 경험이 필요했다. 꾸준히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고 전화를 응대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았다. 그래서 나는 민간 식품기업의 품질관리직으로 이력서를 넣었다.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기업에 면접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나의 인턴 경력을 관심 있게 들어서 채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체험형 인턴을 수료했던 경험이 곧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식품의 품질관리 직무는 품질평가사와 상당히 유사했다. 가공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의 공정을 관리했으며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했다. 사무실로 복귀해서는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었고 민원전화에도 응대했다. 처음 맡은 업무였음에도 유사한 직무 경험이 있었기에 적응과 대응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 품질관리팀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식육 가공품과 계란 가공품의 품질관리직으로 일했던 나는 2024년 하반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질평가직 공채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하게 되었다. 체험형 인턴으로 우리 기관에 입사한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내가 우리 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 그 경험을 살려서 민간 기업에 입사하여 최대한 업무 감각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에서 열정이 느껴졌다고 면접관계서는 말씀하셨다.

인턴십의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 민간과 공공기관 양측의 취업에 성공한 셈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주변에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꼭 추천하고 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흥미를 느꼈던 직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직장인 예의범절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요령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년 전의 나와 같은 청년들이 이러한 체험형 인턴십을 경험한다면 해당 직무의 ‘중고 신입’으로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쉬워질 것이다. 고용난의 시대에 준비된 신입사원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민간과 공공기관도 적합한 인재를 찾기 쉬울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활성화 및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331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성격과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산업 전체에 관여한다는 점은 같다.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한다면 직무 경험을 가진 신입사원들이 해당 기관과 동종의 유사한 기관, 혹은 민간의 다른 기업들에 이력서를 낼 것이다.

물론 애로사항은 존재한다.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 특성상 정규직이 아닌 인턴을 받아 들일 공간과 교육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인턴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 청년인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 담당을 편성할 여유가 있어야 인턴십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보다 정착을 늦게 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였고, 그간의 시간을 후회 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오늘의 나는 6년 전의 내가 간절히 꿈꾸었던 모습이다.

## 3,500km를 날아 다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다

한국국제협력단 | 조○○



‘인턴(intern)’이란 단어의 어원을 혹시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턴은 ‘내부’, ‘안쪽’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테르누스(internu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래를 처음 알게 된 건 몇 년 전 학부에서 수강한 어떤 언어학 전공수업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이 무슨 내부자야? 요새는 다 체험형 인턴만 뽑고 말아서 그냥 걸핼기만 하고 오는거지.’

지금이야 공허한 툭툭거림이었겠거니 하지만, 한동안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경험상 취업 준비 시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제도가 이 편견을 부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KOICA는 외교부 산하 해외 무상원조 수행기관으로, 2025년 기준 전 세계 47개 개발도상국에 사무소를 두고 원조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KOICA에는 여러 청년인턴 제도들이 있고, 앞서 언급한 해외사무소에 파견되는 청년인턴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계약기간 중 KOICA 일반직 공채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Q 저는 영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 YP)입니다

KOICA에서는 해외사무소·재외공관과 국내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을 영프로페셔널(YP)이라고 부릅니다. YP는 UN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실제 사무소에서 인턴들의 대외 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KOICA도 이 명칭을 채용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허울뿐인 명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울림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소에서의 1년이 '프로페셔널'로 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으로 라오스에 파견되기 전, 저는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KOICA 공채를 준비해서 필기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도저히 내세울 만한 강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공 공부는 재밌게 했지만 면접에 도움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서야 무상원조 분야에 관심이 생겼던 것이 후회막심했습니다.

결국 면접에 낙방한 뒤 경험을 쌓아서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끈 곳이 'KOICA 해외사무소 YP' 지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이어서 다행스럽게도 다소 낮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사업 최전선에서 부딪히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니 천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 Q 안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앞서 말한 제 편견 '인턴이 무슨 내부자야?'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끝낸 뒤 출근한 첫날에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KOICA YP가 '독서실 인턴'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인턴 기간 동안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점이 있으나 취업과 현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안문을 직접 쓸 기회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문서 작성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KOICA 해외사무소 YP는 본인의 휴가 결재문서나 간단한 내부 행사·기획 문서 등을 직접 작성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실제 무상원조 사업 진행에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소장님 결재에 앞서 부소장님들의 검토결재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사소한 변화나 정정 사항도 항상 놓치지 않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사업에 대한 풍부한 자료입니다. 사무소 문서함에는 여러 원조사업의 집행계획, 현황 보고, 평가 등 사업의 생애주기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턴이 되기 전에도 도서관 공개자료 등을 통해 공부했지만, 공개 보고서만 읽는 것과 전체 진행 내용을 포괄하는 자료를 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즉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관심 있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학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 한 달간은 업무를 마치고 별일이 없으면 항상 숙소에서 계속 사업 문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제가 가장 목말랐던 현장 경험입니다. 저는 라오스사무소에서 NGO 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협력사업과 베트남 전쟁 동안 발생한 라오스 내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보조했습니다.

불발탄 사업의 경우 공교롭게도 제 군대 주특기(공병 지뢰 매설·제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여전히 아이들이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경우나 불발탄을 분해해서 고철로 쓰러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불발탄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위험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KOICA의 업무가 갖는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가 누군가에게 삶의 짐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 준비가 되었다면 망설임은 뒤로 하고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외에도 저는 KOICA 해외사무소 YP 제도의 특별한 이점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재직 중에 일반직 채용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응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 숙박 비용은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인턴으로 근무 중인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은 있지만 그만큼 비용 및 일정 관리의 위험성은 부담해야 합니다.

저도 인턴을 시작하며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직 채용 응시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리스크가 있으니 지원서 제출 직전에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마음도 있었고 마침 채용공고가 9월에 게시되어 경험을 적절히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NCS, 논술시험 공부도 원격 화상회의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소 동료분들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부담감을 떨쳐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인턴 재직 중에 해당 기관의 채용에 도전해 보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그 기회를 잡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절실함’에 더하여, 특히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직자만 알 수 있는 디테일한 업무 이야기부터,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까지 가능해집니다. 제 경우도 ‘한국국제협력단에 입사하기 위해 3,500km를 날아온 지원자’라는 말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해외사무소 인턴이 아니었다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에서도 이렇게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 입사해 보고 싶다면 재직 중일 때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 Q 청년인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글의 서두에서 과거엔 불평도 했었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저는 청년인턴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특정한 목표를 갖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턴 업무가 처음에 본인도 생각했던 점과는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해외사무소 YP는 KOICA 입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수기의 주제가 '청년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입사 경험'이기 때문에 사무소 인턴 생활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여 아쉬울 따름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내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소에서의 1년이 '프로페셔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으나 지금도 제가 그 의미에 걸맞은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YP 근무 기간은 그 출발선을 그려 준 고마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인턴분들의 앞날에, 이 시기가 유의미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고졸 채용 | 블라인드 채용 | 장애인 채용  
지역인재 채용 | 청년인턴 채용

인 쇄 2025년 12월 28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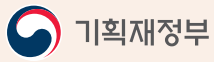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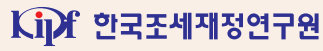
ISBN 979-11-6655-375-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매품/무료



9 791166 553752  
ISBN 979-11-6655-375-2



9 3 3 2 0